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지속가능금융 동향 및 회원사 사례







## Part I. 지속가능금융 소개

<b>1. 지속가능금융 개요</b>	6
1) 지속가능금융의 발전	7
2) 지속가능금융의 개념	10
3) 지속가능금융의 범위 및 유형	11
<b>2. 지속가능금융 동향</b>	14
1)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15
가. 유럽연합(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및 전략	15
나.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18
다. 한국 ESG 금융 추진단 결성	19
2) 지속가능금융 가이드라인	20
가. UN 주도의 원칙 및 이니셔티브	20
나. 지속가능금융상품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26
3)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36
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공시 프레임워크	36
나. EU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38
다.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40
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표준	42
마.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 공시 프레임워크	44
바. 한국 ESG 공시제도 로드맵	46
<b>[참고 1] 지속가능금융 주요 이니셔티브</b>	52
<b>[참고 2] 투자·평가 시 UNGC 반영사례</b>	57

## Part II. UNGC 회원사 지속가능금융 사례

KB금융지주	66
DGB금융지주	72
IBK기업은행	79
하나은행	84
현대캐피탈	90
애쿠온캐피탈	95
롯데카드	101
미래에셋증권	107
KB증권	110
마스턴투자운용	117
한국무역보험공사	125
기술보증기금	129
참고문헌	134

## Part I.

### 지속가능금융 소개

1. 지속가능금융 개요

2. 지속가능금융 동향



## 1. 지속가능금융 개요



### 1) 지속가능금융의 발전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WCED)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개념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정상회담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가 도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가 설립되었다. 2000년에 들어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제시하며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8대 목표를 제시하였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를 발족하였다. 이후 2004년에는 UNGC와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며 기업 지속가능성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 요소가 제시되었다. 이후 UNGC와 UNEP FI는 2006년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며 6가지 책임투자원칙을 제시하였고, 2009년에는 지속가능투자시장을 더욱 확대하고자 UNGC, UNEP FI, PRI, UNCTAD가 함께 지속가능거래소(Sustainable Stock Exchange)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다.



2015년을 맞아 유엔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SDGs는 MDGs에 비해 광범위한 아젠다와 대상을 포괄하고 있어 2030년까지 필요한 자원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2015년 아디스아바바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공적원조를 넘어 민간 부문을 포함하기 위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등 개발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민간 자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세계경제포럼 및 OECD는 은행, 투자기금, 연기금, 개발금융기관, 재단, 정부 및 다자개발은행 등 42개 기관과 함께 지속가능발전투자파트너십(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Partnership, SDIP)을 운영하였다.

한편 같은 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확대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설립한 기후정보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가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Taxonomy), 지속가능성공시 및 회계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발표하였고, 이후 EU는 계획한 바에 따라 EU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 소셜택소노미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 및 시행하며 선도적으로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1997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4년 EU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2017년 G20의 TCFD 권고안, 2018년 미국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EU의 2021년 SFDR과 2022년 CSRD, 2023년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그리고 2023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공시표준 최종안과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NFD)의 권고안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생태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림1. 지속가능금융 주요 마일스톤]



Source: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oSIF(2020) 등을 참고하여 UNGC 한국협회 작성



## 2) 지속가능금융의 개념

2016년부터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G20은 UN SDGs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장적 준비(institutional and market arrangements)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상품,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논의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에서는 금융부문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를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리스크 요소에 대한 투명성 제고, 그리고 금융 및 기업 주체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한 리스크 완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한다.<sup>1</sup> 한편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는 이니셔티브의 특성 상 환경 이슈에 주목하며 기후 금융(climate finance,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고 그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금융) 및 녹색 금융(green finance, 기후 외에도 다른 환경적 목적과 리스크를 다루는 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한다.<sup>2</sup> 최근에는 지속가능성과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혼용됨에 따라, 재무성과와 ESG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금융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속가능금융 또는 ESG 금융의 정의가 수렴되어 가는 추세다.

또한 최근에는 EU를 중심으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전환금융은 기존의 지속가능금융 접근법이 '순수한 녹색(pure green)' 투자에 초점을 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sup>3</sup> 아직은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을 향해 전환해 나가고자 하는 곳에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꾸준히 줄여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서비스·상품, 제도 및 시장체제를 의미한다. 한편 EU는 정의로운 경제전환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을 조성하고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17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 근로자와 주민 지원을 위해 1000억 유로 이상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유럽 경제전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우선 175억을 투자하고, 근로자 및 주민 지원을 위해 2027년 까지 10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1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sustainable finance](#)  
 2 UNEP FI, [Definitions and concepts: Background Note \(Inquiry working paper 16/13\)](#) (2016)  
 3 KDI, [글로벌경제리뷰 Vol.1 No.1](#) (2022)

## 3) 지속가능금융의 범위 및 유형

지속가능금융 활동은 금융기관이 ESG 관련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ESG 투자, ESG 대출 등에 활용하거나 기업이 ESG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프로젝트나 ESG 경영성과 개선에 사용하는 협의의 개념이 있다. 반면 채원과 관계없이 마련된 자금을 ESG 관련 금융활동에 사용하는 광의의 개념도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 중 ESG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형의 경우 ESG 금융상품으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임팩트 금융이나 사회책임투자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후생 증진에 초점을 두는 금융활동이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소액금융(microfinance), 적극적 주주권 행사(active ownership),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그리고 더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체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까지 지속가능금융의 범주에 포함된다.<sup>4</sup>

[표1. 지속가능금융의 유형]

유형	개념	예시
ESG 투자	연기금 등 공적금융기관과 은행·보험사 등 민간금융기관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를 고려하는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모든 형태의 투자</li> <li>■ ESG 투자 전략 유형: 네거티브/포지티브/규범기반 스크리닝, ESG 통합, 지속가능테마투자, 임팩트 투자, 기업 관여 등</li> </ul>
ESG 대출	ESG와 관련된 시설투자 목적의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심사에 ESG를 반영하거나 ESG 관련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기업대출 (녹색업종 영위기업 대출 등)</li> <li>■ ESG 개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li> <li>■ 프로젝트파이낸싱 (환경·사회 인프라 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PF 등)</li> </ul>
ESG 금융상품	ESG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SG 예·적금/보험 (예·적금 및 보험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ESG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상품)</li> <li>■ ESG 카드 (ESG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에 대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li> </ul>

Source: KoSIF(2020) 참고하여 UNGC 한국협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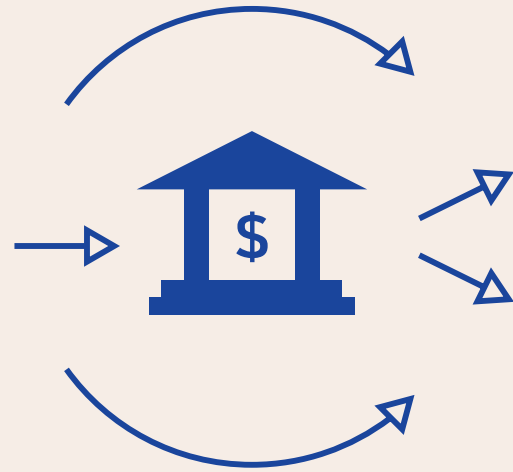
4 Swiss Sustainable Finance, [What is Sustainable Finance.](#)



##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 [규제 및 관련 기관]

- 정보공시 강화 규제(기업·금융기관)
-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감독
-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장려
- 공시 기준 표준화 및 ESG 평가



### [기업]

- 자금 공급: 대출, 채권, 주식 투자
- ESG 경영 독려 (주주 관여)
- ESG 정보공시 강화 요구
- ESG 리스크 관리

### [투자자]

- 자금 운용: ESG 통합 투자
- 장기 수익률 추구
- 다양한 ESG 금융 상품 출시
- 분류체계 준수 및 공시

지속가능금융 생태계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자, 기업, 규제기관, 표준화 및 평가 기관들이 함께하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먼저 자금 운용주체로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은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등 주주 관여(engagement)를 통해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ESG 투자금융상품을 출시하고 ESG 분류체계를 준수하여 공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금을 공급받는 주체로 대출, 채권,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ESG 경영 추구, ESG 정보 공시, ESG 리스크 관리 등을 행하는 주체가 된다. 규제 및 관련 기관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를 규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감독을 하며 기관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고 있다.

Source: 한국은행(2021)

## 전환금융 논의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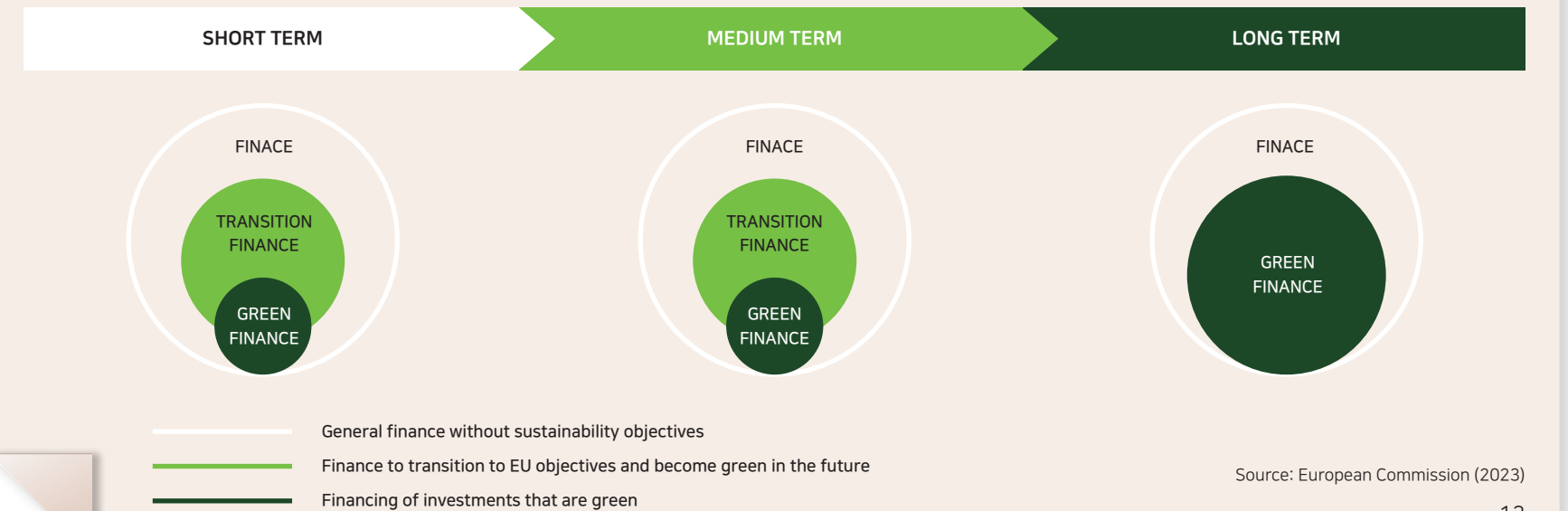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목표를 담고 있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과거의 많은 논의가 친환경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등 녹색금융에 집중되었으나, 정작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탄소 부문의 저탄소 전환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대두되고 있는 양상이다.

2019년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녹색 전환 채권 프레임워크', 2020년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기후전환금융 핸드북'과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의 '신뢰할 수 있는 전환 조달' 등 전환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환금융의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OECD가 전환금융 지침을 발표하며, 경제 전체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프로세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023년 6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추가적인 지속가능금융 패키지를 발표하며 전환금융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권고안은 자발적 성격이지만,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환(transition)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환금융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면서, 고탄소 산업 내 기업들도 전환금융을 통해 탄소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아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전환 활동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전환금융이 자칫 '그린 워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기업 및 투자자 모두 활용을 주저했었으나, 구체적인 전환금융 지침들이 등장하며 전환금융은 기업에게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전환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전환금융의 주요 도구 중 하나인 전환채권(transition bond) 발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탄소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전환채권의 장점을 빠르게 인지하고, 자국의 고탄소 산업 내 기업들의 전환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전환금융 관련 담론이 초기 수준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2. 전환금융의 과도기적 역할]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23)



## 2. 지속가능금융 동향

### 1)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 자본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정책 제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통해 방향성을 선포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활동이나 상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와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의 발판이 되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평가와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정보의 확산을 위해 각종 표준과 지침이 제정되고 있다.

실물경제의 지속가능성 이행에 금융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금융이 나아갈 길을 선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세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 및 금융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G20에서도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을 별도로 결성하여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2023년 'ESG 금융 추진단'을 결성하고 체계적으로 ESG 금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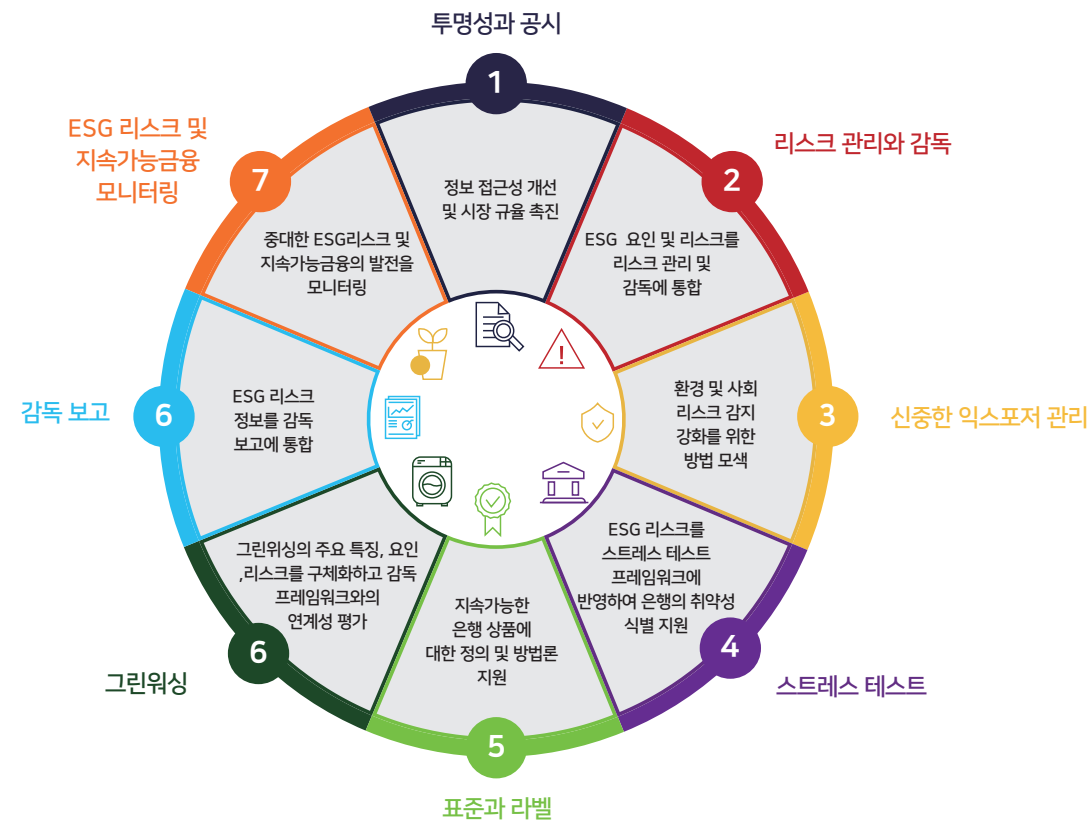
#### 가. 유럽연합(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및 전략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과 ESG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통해 3대 목표 및 10대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자금을 지속가능한 경제 영역으로 유도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금융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했다. 그린딜 발표로 2050년까지 유럽을 기후 중립 대륙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정립했다. 이어서 유럽그린딜 투자계획(The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하며 공공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유럽 그린딜을 법제화 하기 위해 유럽기후법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한다는 Fit-for-55 법안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법안 패키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가격결정 관련 법안, ▲감축목표 설정, ▲규정 강화 관련 12개의 법안과 포용적 전환을 위한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으며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으로 2025-2032년간 약 722억 유로의 예산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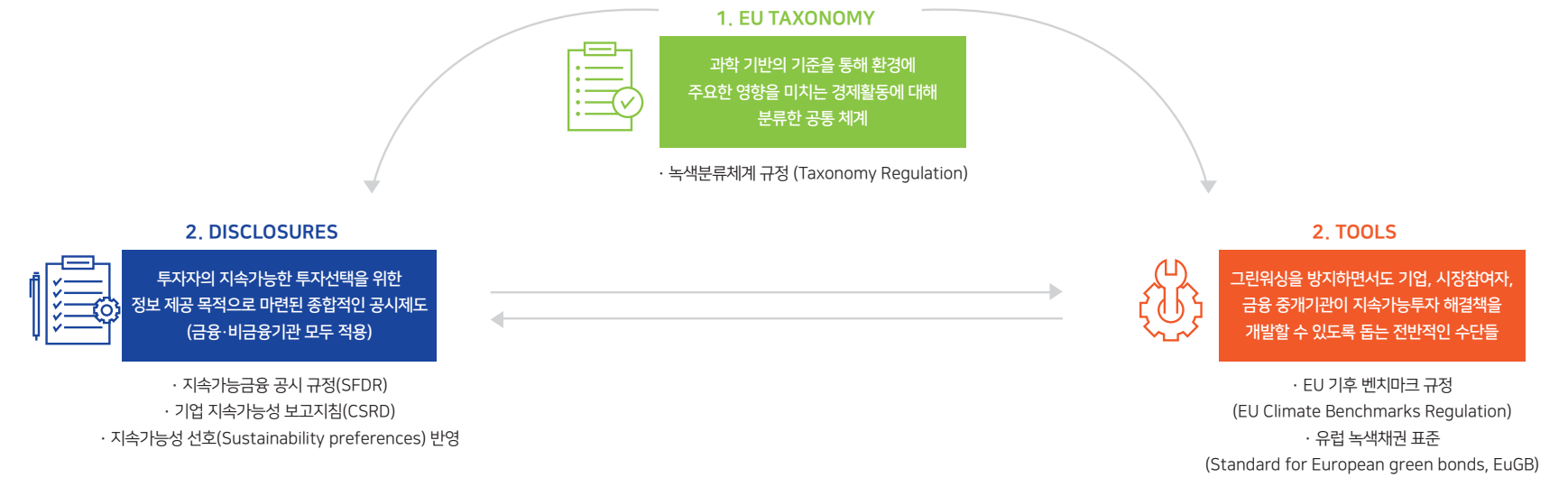
또한 2021년에는 지속가능금융 전략(Sustainable Finance Strategy)을 발표하여 ▲실물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전환 금융 ▲보다 포용적인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조성 ▲금융시스템의 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이중 중요성) ▲글로벌 협력 촉진이라는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전략을 도출하였다. 2022년에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이 2022-2024 지속가능 금융 로드맵(Sustainable Finance Roadmap)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는 현재의 지속가능 금융 시장이 직면한 리스크를 식별하여 우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제시된 우선 과제는 ▲그린워싱 대응과 투명성 촉진(Tackling greenwashing and promoting transparency) ▲NCA(국가관할당국)와 ESMA의 지속가능금융 역량 구축(Building NCAs' and ESMA's SF capacities) ▲ESG 시장 및 리스크 모니터링, 평가, 분석(Monitoring, assessing and analysing ESG-related markets and risks)이다.<sup>5</sup> 유럽은행당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도 2022년 EU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3개년의 지속가능 금융 로드맵을 발표하며 ▲투명성과 공시 ▲리스크 관리와 감독 ▲신중한 익스포저 관리 ▲스트레스 테스트 ▲표준과 라벨 ▲그린워싱 ▲감독 보고 ▲ESG 리스크 및 지속가능금융 모니터링의 8대 목표를 제시하였다.<sup>6</sup>

[그림 3. EBA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주요 목표]



5 김효진, “ESMA,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 발표… 그린워싱 대응 정조준” 임팩트온, 2022년 2월 17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477>.  
 6 송준호, “EBA,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 발표…EU감독기관의 ESG 금융 규제 시간표는?” 임팩트온, 2022년 12월 19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22>

[그림 4. EU의 지속가능금융 기반]



Source: European Commission(2021); UNGC 한국협회 번역

한편 EU는 2018년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에 따라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을 강화하며, ▲녹색채권 등 금융 도구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녹색분류체계는 과학기반의 기준을 통해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에 대해 분류한 EU 공통의 체계로, 2020년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해 기업들은 산업활동의 친환경여부를 알 수 있으며 지속가능금융제도를 이용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EU는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투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규정을 강화하였다. 2021년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SFDR)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는 2014년에 도입하였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을 강화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제정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8월부터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하거나 고객의 자산을 운용할 때 고객의 지속가능성 선호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 및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sup>8</sup>

마지막으로 2019년 EU 기후 벤치마크<sup>9</sup> 규정 개정, 2022년 EU 녹색채권 표준 제정 등의 조치로 그린워싱을 방지하면서도 기업, 시장 참여자, 금융 중개기관이 지속가능투자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전반적인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7 고객이 선호하는 i)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의 투자 비중, ii) SFDR에 따른 지속가능투자 비중, iii) 주요 부정적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s) 및 기타 ESG 사안에 관한 질적·양적 고려사항이 있는 지 고객에게 질문하여,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이 고객의 지속가능성 선호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지속가능성 선호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8 European Commission(2019),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ESMA(2023), Call for evidence on the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preferences in the suitability assessment and product governance arrangements.

9 투자의 운용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의 의향과 내부구조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뜻함

## 나.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2021년 G20은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 SFWG)을 통해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로드맵의 목표는 민간 및 공공의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여 파리협정 및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5개 집중 분야와 19개 액션플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G20 SFWG 집중분야별 액션플랜]

내용	완료 시기
<b>집중 분야 I. 지속가능한 투자 조정 및 접근 방식 개발</b>	
1 투자 조정 접근방식을 자체 개발하려는 국가들을 위한 원칙 제안	2021
2 국가간 협력하여 ESG 평가 방법론, 검증 및 라벨링 접근방식과 택소노미 개발	2025
3 국제기구, 네트워크 및 이니셔티브를 통한 권장사항 개발	2023
4 전환금융 고려사항과 지속가능한 재무조정 접근방식의 통합	2023
5 지속가능금융 시장을 확대할 기회 식별	2023
<b>집중 분야 II. 지속가능성 위험, 기회 및 영향에 대한 정보</b>	
6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표준기준 개발	2022
7 FSB, NGFS, OECD, BIS, IMF 및 기타 국제기구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	2023
8 ESG 평가기관의 데이터 품질, 유용성 및 방법론의 투명성 개선	2025
9 중소기업 및 신흥시장 경제의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문제 해결	2023
10 자연 및 생물다양성 지표에 대한 이해 발전	2023
<b>집중 분야 III. 기후 및 지속가능성 리스크 평가 및 관리</b>	
11 잠재적인 기후관련 재정 리스크의 영향 연구	2023
12 FSB, NGFS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2023
13 G20 FWG와 협력하여 기후위험과 기후정책의 거시경제적 시사점 도출	2024
<b>집중 분야 IV.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공공 재정 및 정책 인센티브</b>	
14 다자개발은행(MDB)의 참여 촉진	2023
15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2022
16 에너지 관련 공공정책 역할 분석	2025
<b>집중 분야 V. 범분야 이슈</b>	
17 지속가능한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 개발	2023
18 기후변화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프레임워크 개발	2023
19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로드맵 달성을 위한 역량 구축 노력을 조정	계속

Source: G20(2021); KDI(2022)

2022년에는 해당 로드맵을 토대로 전환금융 프레임워크(Transition Finance Framework)를 발표했다.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는 ▲전환 활동 및 투자 식별 ▲전환 활동 및 투자에 대한 정보 보고 ▲전환 관련 금융 상품 개발 ▲정책 수단 설계 ▲전환 활동과 투자의 부정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평가 및 완화에 이르는 5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각국이 기후 관련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및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sup>10</sup> 또한 2023년에는 SDGs를 위한 금융 프레임워크(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를 제시하며, 기후 및 환경 관련 목표 이외에 다른 SDGs에까지 폭넓게 기여하는 금융의 역할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 다. 한국 ESG 금융 추진단 결성



ESG 금융추진단 운영으로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 그리고 금융산업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주요 논의 주제로 ▲(ESG 공시·평가) ESG 공시제도 구체화, 국내 ESG 공시기준 검토, ESG 평가 신뢰성 제고 ▲(민간 금융) ESG 금융상품 활성화, ESG 책임투자 확산, 중소기업 ESG 역량 지원, ESG 전문가 양성 ▲(녹색·정책금융) 정책금융 지원 확대,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에서 협의된 사안을 향후 정책 세미나와 발전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SG 금융추진단은 매 2개월마다 개최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23년 11월까지 총 세번의 금융추진단 회의가 개최되었다.

### 금융위가 밝힌 국내 ESG 공시, 평가, 투자관련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 ● ESG 공시

최근 EU,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규율대상을 확대하는 등 ESG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외 공시기준 번역, 중소·중견기업 경영 컨설팅,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 ESG 평가

ESG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 ESG 평가제도(ratings)는 공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ESG 활동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가결과와 신뢰성이나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ESG 투자·리스크 관리

기후리스크는 금융시스템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큼, 금융회사가 기후 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여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Source: 금융위원회(2023)

10 UNDP, [Sustainable Finance: A Transition Framework to Reach the SDGs](#), Sustainable Finance Hub.



## 2) 지속가능금융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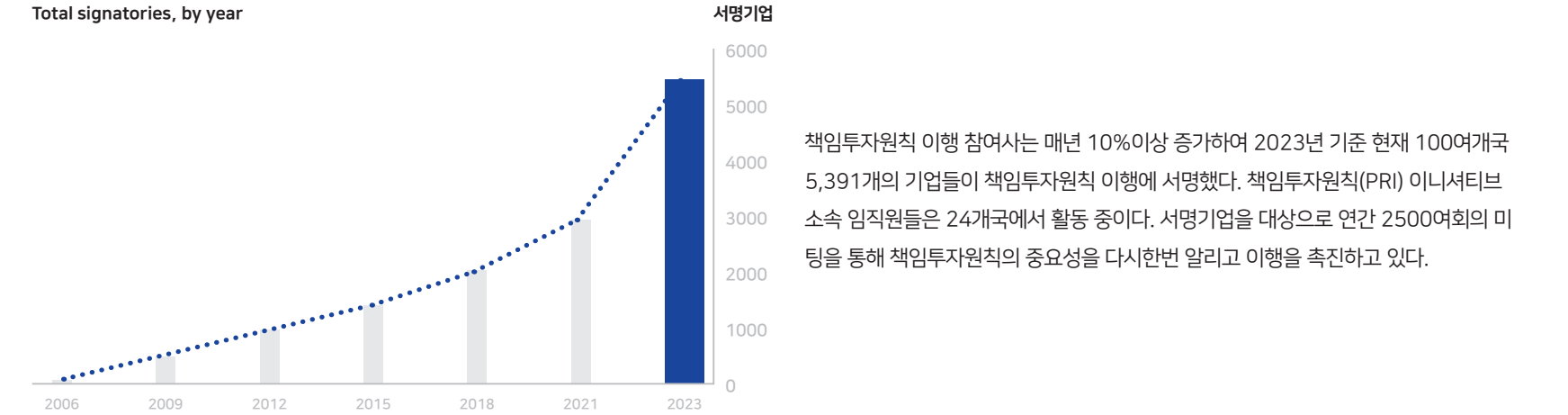
지속가능금융 촉진을 위해 투자, 채권, 여신 등 금융산업 주요부문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2006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간되었다. 우선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금융 촉진을 위해 투자, 보험, 은행, 증권거래소에 대한 전문 원칙들이 유엔파트너십 프로그램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투자를 위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년), ▲보험산업의 지속가능보험원칙(The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2012년), ▲은행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2016년), ▲증권거래소에 대한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2009년)는 국제적으로 금융사들의 지속가능금융 실천을 위한 필수적 가이드선로서 고려되고 있다. 한편,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여신신디케이션거래연합(LSTA)에서 지속가능금융관련 채권 및 여신에 대한 국제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로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본국의 지속가능금융 활동에 대한 금융정책과 구체적인 규제정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가. UN 주도의 원칙 및 이니셔티브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은 주요 투자 이니셔티브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UNEP FI(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의 협력을 통해 2006년 제정되었다. UN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적 요소가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ESG가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수익 달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고안 당시 코피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약 2년동안의 준비기간 동안 기관투자자, 각국 정부,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식적으로 2006년 04월 2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발표되었으며 6가지 투자원칙에 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5. 연도별 책임투자원칙 이행 서명기업]



### UN 책임투자원칙(PRI) 주요내용

- [원칙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원칙 2] 우리는 투자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된다.
- [원칙 3]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 [원칙 4]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 [원칙 5] 우리는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원칙 6] 우리는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Source: www.unpri.org



지속가능보험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은 UNEP FI의 주도로 2012년 Rio+20 정상회의에서 제정되었다. PSI는 UN과 글로벌 보험사간 조성한 최대의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투자결정, 상품/서비스 개발, 임직원에게 ESG 교육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ESG 이슈를 내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기술한 책임투자원칙은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원칙인 반면 지속가능보험원칙은 전세계적으로 보험사에 집중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151개의 보험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동부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등 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보험원칙은 보험회사들이 재생에너지, 깨끗한 물, 식량안보 등 지속가능한 사회정착을 위한 보험솔루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UN 지속가능보험원칙(PSI) 주요내용**

- [원칙1] 보험사들의 운영 전략, 리스크 관리, 투자 의사결정에 ESG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 [원칙2]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위험 관리 솔루션 개발을 함께 한다.
- [원칙3] 정부, 규제기관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사회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활동을 촉진한다.
- [원칙4] 원칙의 이행성과를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Source: www.unepfi.org/insurance 번역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사업전략, 의사결정, 대출 및 투자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되도록 촉진하는 세계 최대의 지속가능 은행부문 프레임워크로, 2019년 UN총회를 계기로 수립되었다. 책임은행원칙은 기후문제에 중점을 둔 탄소중립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을 포괄하는 상위원칙이다. 책임은행원칙은 아래 6대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 수립 당시 130개 기관이 참여해 2023년 현재 324개 기관들이 이행 결의를 했다. 서명기업들은 전세계 자산기준 글로벌은행분야의 50%를 반영하며 총 자산은 미화 89.4조 달러규모이다. 국내금융사로서는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신한은행 등 12개의 은행 및 금융사들이 책임은행원칙 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표 3. UN 책임은행원칙(PRB) 주요내용]**

1. 정렬 (Alignment)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 국가/지역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개인별 니즈와 사회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렬한다.
2. 영향 및 목표 설정 (Impact & Target Setting)	금융사의 활동,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 및 환경 리스크와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고, 긍정영향을 확대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공표한다.
3. 클라이언트와 고객 (Clients & Customers)	클라이언트와 고객의 지속가능한 관행을 장려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동번영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위해 책임감 있게 협력한다.
4. 이해관계자 (Stakeholders)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5. 거버넌스와 문화 (Governance & Culture)	효과적인 지배구조 체계와 책임은행 문화를 통해 원칙에 대한 서약을 이행한다.
6. 투명성 및 책임이행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원칙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긍정 및 부정적 영향과 사회목표에 대한 기여를 공개하고, 책임을 이행한다.

Source: www.unepfi.org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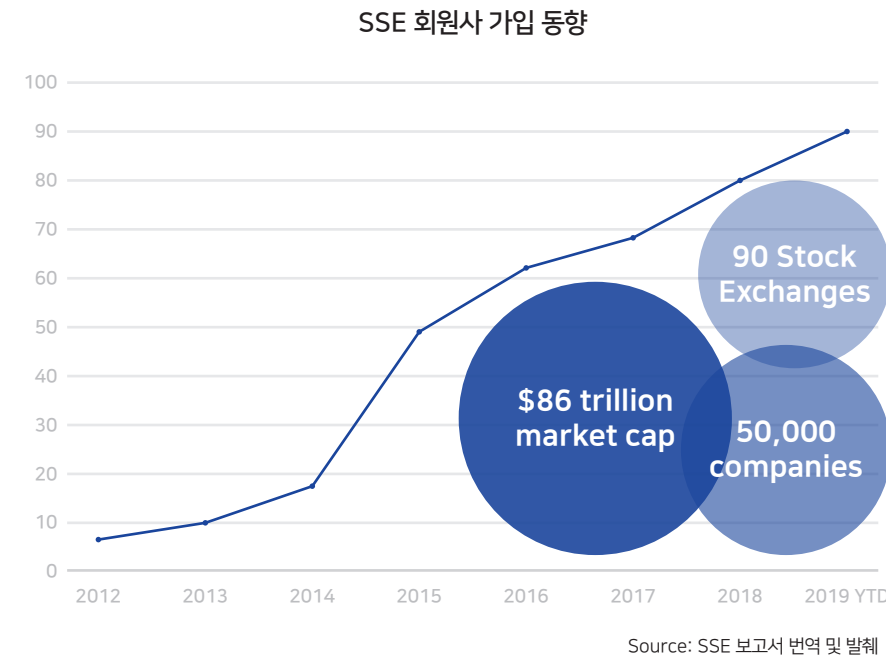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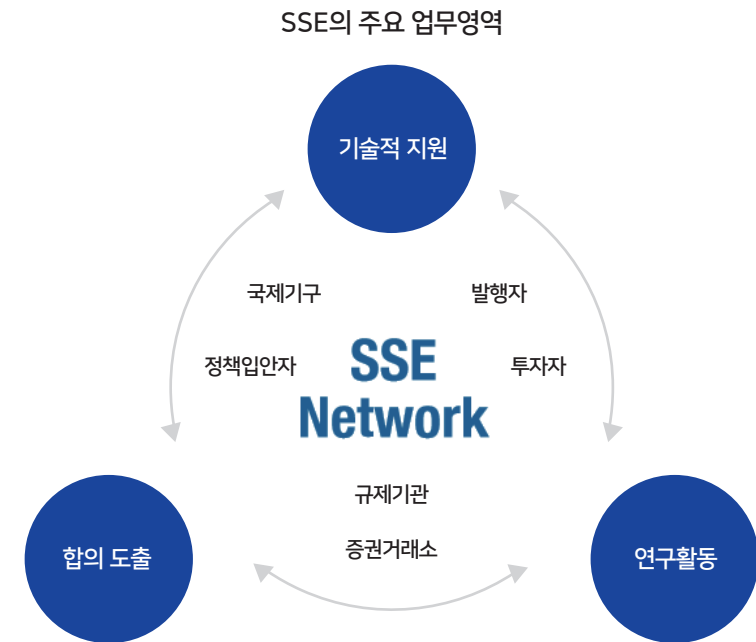


탄소중립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은 21년 04월 21일 설립이후 2023년 08월 기준 전세계 43개국의 133개 은행이 가입해 자산기준 글로벌은행분야의 40%를 반영하고 있다. 탄소중립은행연합의 가입에 따라 회원기관은 2050년까지 대출과 투자 등 은행활동의 탄소중립 이행을 결의한다. 국내의 경우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등 7개사가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UN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무역개발회의, UNEP FI, PRI의 공동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SSE)를 2009년 발족했다. SSE는 투자자, 발행자, 규제기관, 정책기관, 그리고 국제 조직들의 협력을 통해 증권거래소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다양한 ESG관련 현안들에 대한 공헌을 조직 미션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션실행을 위해 SSE의 주요 업무로 ▲자문활동, ▲기술적 지원, ▲합의도출, ▲연구활동 등을 진행한다. 2023년 기준 회원사로서 국내 한국거래소를 포함 133개국의 증권거래소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투자사, 정부기관, 대학 및 싱크탱크 등 200여개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림 6. SSE 주요 업무 및 회원사 가입 동향]



주요관계자로서 세계거래소연맹(World Federation of Exchange), 유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고한 협업관계를 구축하였다.

SSE는 증권거래소의 ESG공시, 녹색금융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금융의 일환으로 증권거래 관계산업의 다양성(Diversity)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평등(Geographical diversity)과 성평등(Gender Diversity)에 관한 다양성 촉진을 핵심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성평등을 알리기 위한 핵심적인 이벤트로 '링더벨(Ring the bell)' 행사를 SSE 회원으로 등록된 133여개 증권거래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링더벨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성평등을 위한 종을 울리는 타종 행사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2022년부터 UNGC 한국협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링더벨 행사를 추진하여 타종을 울리고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그림 7. 전세계 링더벨 행사 현황 및 이벤트 사진]



Source: UNGC 한국협회, SSE 번역 및 발췌

나. 지속가능금융상품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1)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는 2005년 IPMA(International Primary Market Association)와 ISMA(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설립 이후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국제자본시장의 규율유지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규칙(Rule)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원사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각국간의 법적, 제도적 규제체계변화를 신속히 공지하며 필요시 수요국가에 대해 규제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회원으로는 영란은행, 핀란드 국립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BIS와 같은 국제금융기관 또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600여개 이상의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은 특히 부채관련 자본시장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금융시장의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le Bond),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 Linked Bond, SLB)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연달아 발간해 지속가능금융 부문의 부채자본 조달을 위한 기준을 국제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그림 8. ICMA가 발간한 ESG 채권 원칙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Source: ICMA 보고서 번역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사회적채권원칙(Social Bond Principle),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에는(Sustainable Bond Guideline) 공통적으로 ▲조달자금의사용(Use of Proceeds), ▲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프로세스(Process for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조달자금관리(Management of Proceeds), ▲보고(Reporting)가 핵심 구성요소로서 담겨있다. 4대 핵심구성요소를 준수하여 채권 발행사는 환경(녹색채권), 사회(사회적채권), 환경 및 사회 융합형(지속가능채권)과 같은 프로젝트 목적을 고려해 채권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표 4.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원칙 및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관련 주요 프로세스	조달자금관리	보고
녹색채권원칙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 오염방지 및 억제; 생물 자연자원 및 토지 지속가능관리; 생물 다양성보존; 클린수송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목표; 발행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관리	외부 감사인 또는 기타 제3의 기관을 활용 권고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
사회적채권원칙	적정 가격의 기본적 인프라 설비; 생활 필수 인프라; 서비스 접근, 적정가격의 주택, 식량안전보장, 사회경제적 발전 등	사회적 목표; 발행사의 사회적목표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녹색 프로젝트와 사회적 프로젝트 모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자금 조달 및 리파이낸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채권			

Source: ICMA Green Bond Principle, Social Bond Principle,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 발췌 및 번역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또한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SLBP)을 마련했고, 원칙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원칙 내 지침을 추가하고 있다. ICMA가 2020년 06월에 발표한 SLB원칙은 ▲핵심성과지표(KPI) 선정,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설정, ▲채권의 특성(Bond Characteristics) 명시, ▲사후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의 5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2019년 처음 에너지회사 Enel Group에 의해 발행된 이후 2020년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SLBP 마련에 힘입어 급격히 발행증가와 함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유틸리티, 에너지, 소비재, 농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발행<sup>11</sup>되고 있다.

[표 5.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 주요내용]

핵심요소	주요 내용
핵심성과지표(KPI)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PI가 발행기관의 핵심 지속가능성 전략 및 사업 전략에 중요한 일부 반영; 산업 섹터의 환경, 사회 혹은 거버넌스 관련 문제를 해결 - 측정 및 정량가능, 외부검증, 벤치마킹 가능성 포함 필요</li> </ul>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T 설정에 다음과 같은 기준 충족 필요</li> <li>- 지속가능성과목표(SPT)에 일상적인 영업(BAU)의 변화 수준을 넘어서는 중요한 수준의 개선 필요</li> <li>- 지속가능성과목표(SPT)가 벤치마크 또는 외부 참조와 비교 가능</li> <li>- 발행기관의 지속가능성·ESG 전략과 일관성</li> <li>- 사전 정의된 기간 내에 달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 전(또는 동시)에 설정</li> </ul>
채권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성과지표(KPI) 정의, 지속가능성과목표(SPT)(산정 방식 포함)와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의 잠재적인 재무적 및/또는 구조적 특성의 변화는 채권 서류에 필수적으로 명시</li> <li>●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발행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필요</li> <li>● 핵심성과지표(KPI) 산정 방식의 변화,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수정, 기준점 또는 핵심성과지표(KPI) 범위의 추정 조정 등 중대변화 채권서류에 명시 필요</li> </ul>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li> <li>●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이 변화의 경우 언제든지 발행이 가능</li> <li>●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li> <li>- 선정된 핵심성과지표(KPI)의 성과에 대한 최신 정보(관련 있는 기준점 포함)</li> <li>- 채권의 재무적 및/또는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과목표(SPT) 달성 성과</li> <li>- 관련 영향 및 영향의 시기를 반영한 지속가능성과목표(SPT) 검증 보고서</li> </ul>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기관은 개별 핵심성과지표(KPI)별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성과에 대해서 감사인, 환경컨설턴트 같이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외부 검토자로부터 최소 연 1회 검증필요</li> <li>● SPT 성과에 대한 검증 결과는 공표 필요</li> </ul>

Source: ICMA 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발췌



### 일반 목적의 SDG 연계 채권의 세계 최초 발행 사례

2019년, 이탈리아의 다국적 전력회사인 ENEL S.p.A.는 네덜란드계 지주사인 Enel Finance International N.V.를 통해 미국, 유럽, 기타 국제 시장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두 개의 SDG 연계 일반 목적 채권을 발행, 4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재생가능한 전력 생산 및 에너지 효율성, 탄소 중립과 같은 지속가능성 전환 전략 전반에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E-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이 전략은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의 주요 시장에 대한 FDI를 포함하였으며, ENEL은 해당 지역에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채권은 지속가능성 관련 특성이 없는 채권에 비해 할인된 금리로 발행되었다. 만기는 ENEL의 지속가능성 전략 이행 약속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지표를 통해 독립적으로 증명된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생가능한 전력 생산 능력을 통합 설치 용량의 55%로 향상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25g/kWh 이하로 감소

또한 해당 채권은 단계별 상승 메커니즘을 따른다.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리가 25bp 상승하게 된다.



Source: UNGC (2023)

11 S&P Global, 2021. 6. 23, Sustainability-linked bonds in 'rapid growth' as more firms tap ESG debt market.

(2) 지속가능연계대출 원칙

ESG 금융대출 상품의 경우 여신신디케이싱거래연합(Loan Syndications and Trading Association, LSTA)에서 제시하는 녹색여신원칙(Green Loan Principles)과 사회적여신원칙(Social Loan Principles)이 주로 사용되었다. 녹색여신원칙은 LSTA에 의해 2018년 처음 발간되었으며 이후 LMA(Loan Market Association)와 APLMA(Asia Pacific Loan Market Association)와 협의에 따라 녹색여신지침 (Guidance on Green Loan Principles)이 2023년 개정 발행되었다.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조달자 금의사용, ▲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프로세스, ▲ 조달자금관리, ▲ 보고가 핵심 구성요소로서 담겨있다.

녹색여신원칙 발간이후 2019년 03월 LSTA는 LMA, APLMA와 공동으로 지속가능연계대출에 대한 지속가능연계대출 원칙(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 SLLP)을 발간했다. 해당원칙은 지속가능연계채권 핵심원칙과 유사하게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선정, ▲지속가능성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 SPT) 측정, ▲대출의 특성(Loan Characteristics),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의 5개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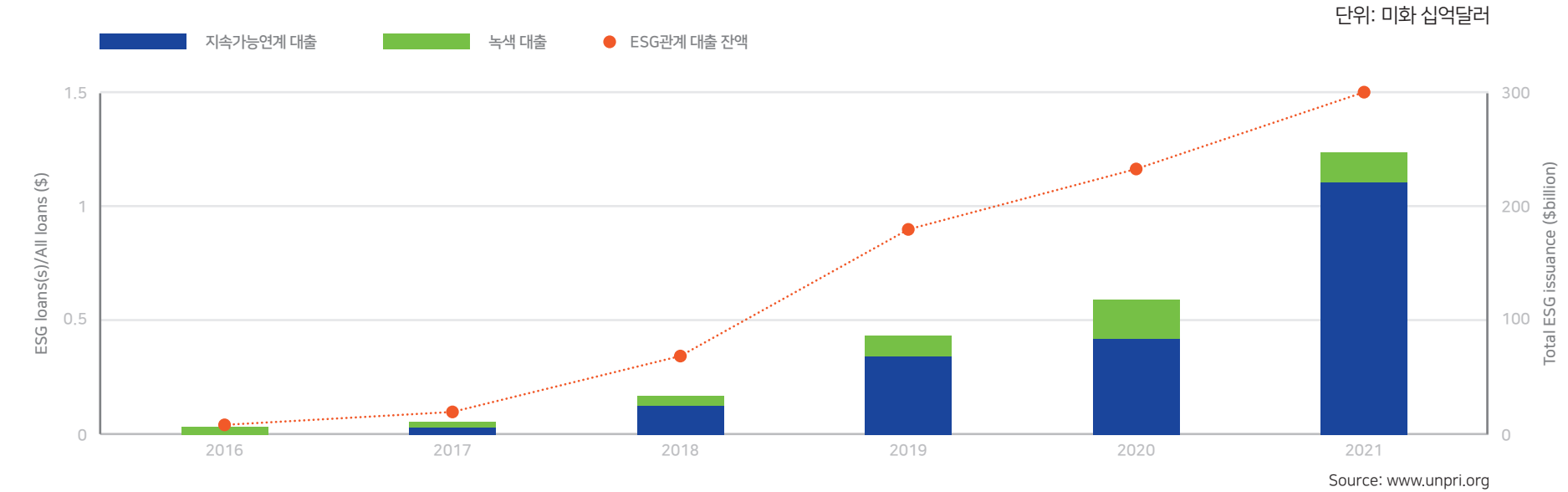
[표 6. 지속가능연계대출 원칙(Sustainability-Linked Loan Principles) 주요 내용]

원칙분야	주요 내용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Selection of KPIs)	- KPI는 기업의 핵심 지속가능성 전략 및 사업 전략 관련 지표로서 선정 - 차입기업의 현재 및 미래 경영활동에 전략적으로 중요해야 함 -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며, 벤치마크가 될 수 있어야 함
지속가능성목표(SPT) 선정 (Calibration of SPTs)	각각의 KPI에 따른 SPT선정절차가 지속가능연계대출 구조화의 핵심 - SPT선정을 위해 다음사안에 대한 고려필요 · 일상적인 영업(business as usual)의 수준을 넘어서는 중요한 수준의 개선 · 벤치마크 또는 외부 레퍼런스와 비교 가능 · 차입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일관성 및 일치성 · 대출과 동시에 또는 대출 실행 이전에 설정 필요 - SPT관련 대출기관에 제공해야하는 정보 · 목표 이행 타임라인 · 검증된 기준 또는 과학 기반의 기준점 · 기준점이 조정 또는 재산정 되는 경우 · ESG 전략, 거버넌스, 투자 등의 관점에서 SPT 달성 방안 설명 · SPT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출기관의 통제 밖에 있는 기타 요인
대출의 특성 (Loan Characteristics)	사전적으로 정의된 SPT의 달성 여부에 따라 경제적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지속가능연계대출의 핵심적인 특징, 예를 들어 SPT 달성시 대출금리 스프레드 인하
보고 (Reporting)	차입기관은 은행에 다음의 정보를 연간 1회 이상 보고해야 함 · SPT가 도전적인 동시에 차입기관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정보 · 해당 연도의 SPT 이행사항 요약 및 검증 보고서 (해당 연도의 SPT대비 성과 포함) · 기관의 Annual Report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으나, 공시 없이 대출은행에만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검증 (Verification)	- 차입기관은 각각의 KPI와 관련된 SPT에 대하여 감사인, 환경컨설턴트, 신용평가사 등으로부터 반드시 독립적인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함 - 외부기관의 사전 검토는 권고사항인 반면, 사후 검증은 필수 사항임

Source: LSTA Sustainability-Linked Loan Principles 번역

지속가능대출(Sustainable Lending)은 전세계적으로 2021년 미화 3,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러한 규모는 전세계 신디케이트대출 부문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였으며, 그중 지속가능연계 대출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여신의 경우 지속가능연계대출과 비교할 때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9. 글로벌 녹색여신 및 지속가능연계대출 규모 추이]



지속가능연계대출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등이 22년 계약체결을 시작하여 대출활용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표 7. 국내 주요 지속가능연계대출 활용 동향]

기업	지속가능연계대출관련 내용
하나은행	23년 07월 하나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SLL형) 출시, 5000억 규모
KDB산업은행	23년 04월 말레이시아 해운사 MISC 지속가능연계 대출 참여
신한은행	22년 09월 국내최초 지속가능연계 차입 (미화 4억불 규모)

Source: 각사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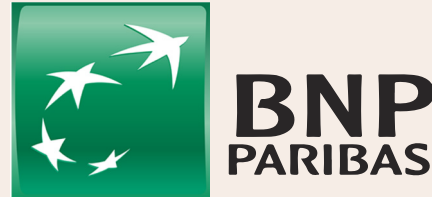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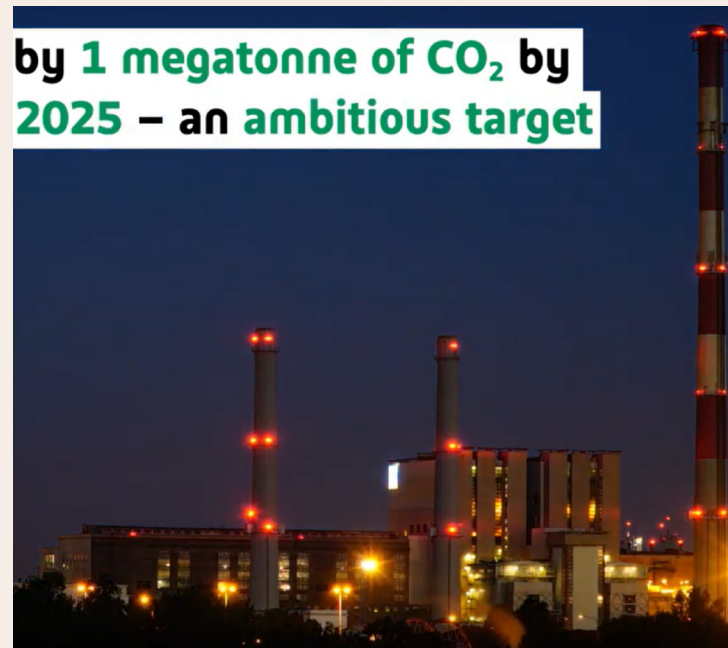




### 글로벌 지속가능연계대출 체결 사례

2019년 프랑스계 다국적 은행인 BNP Paribas는 벨기에 화학회사인 Solvay에게 지속가능연계 대출 시행을 위해 협력했다. BNP Paribas의 협조로 Solvay는 미화 2조달러 규모의 회전 한도 여신(Revolving Credit Facility, RCF)을 9개 은행과 신디케이트 대출 형태로 확보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연계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신에 대한 이자비용이 Solvay사의 온실가스 감축(Green House Gas emission)과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여신에 도입했다. 감축목표로는 2025년까지 1백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여신계약에 따라 감축성공시 이자비용이 감소된다. BNP Paribas는 Solvay의 지속가능 코디네이터 및 여신에이전트 회사로 협력한 사례이다. 해당 사례는 화학산업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3, 7, 12, 13, 17)에 공헌할 수 있는 선도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Solvay의 화학공장>



### (3) 한국 ESG 채권 가이드라인

세계적으로 녹색채권 시장규모는 2015년부터 5년간 약 5배이상 성장하여 3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으로 중요성이 커졌다. 유럽연합(2019년)과 일본(2018년)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2020년 대한민국 또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녹색채권 지침서를 발간했다. 2021년 말에는 환경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공표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녹색채권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 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며 ICMA의 녹색채권원칙을 준수해 4대 핵심요소인 ▲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의 추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3년 1월에 시행된 개정 가이드라인은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채권 발행기업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녹색채권 보고서(관리체계 및 적합성 판단 확인서,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사후 보고서,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들을 공시해야 한다.

[표 8. 한국형녹색채권 가이드라인 - 채권 발행전 단계]

순서	주요내용	핵심도출
1. 발행계획수립	[발행자] · 자금조달 수요 확인 · 주관사 선정 및 기업실사 등 업무 협의 · 신용등급 평가	발행계획
2. 관리체계수립	[발행자] · 관리체계 작성 ① 회사 소개 및 녹색채권 개요 ② 관리체계 목적 ③ 자금의 사용 ④ 평가 및 선정 절차 ⑤ 자금의 관리 ⑥ 보고	관리체계
3. 적합성 판단요청	[발행자] · 한국형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확인 요청	적합성판단 요청서
4. 사전외부검토	[외부검토기관] · 관리체계 외부검토 · 적합성판단 확인	사전 외부검토보고서 적합성판단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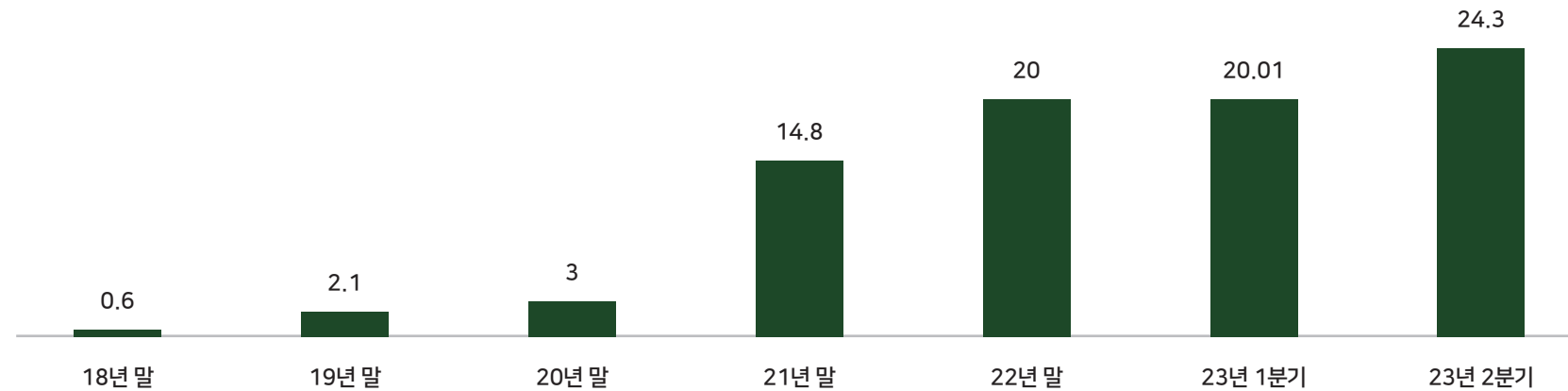
Source: 환경부, 한국형녹색채권가이드라인(22.12) 발제

[표 9. 한국형녹색채권가이드라인 - 채권 발행후 단계]

순서	주요내용	핵심도출
5. 채권발행	[발행자] · 증권신고서 제출 ① 관리체계 공시 ②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공시	발행계획
6. 사후(연례)보고	[발행자] · 사후(연례) 보고서 공시 ① 자금배분 보고 ② 환경영향 보고	관리체계
7. 사후(최종)보고	[발행자] · 자금배분 완료 후 사후(최종) 보고서 공시 ① 자금배분 보고 ② 환경영향 보고 ③ 적합성판단 보고	적합성판단 요청서
8. 사후 외부검토	[외부검토기관] · 사후(최종) 보고서 외부검토	사전 외부검토보고서 적합성판단 확인서

Source: 환경부, 한국형녹색채권가이드라인(22.12) 발취

[그림10. 국내 녹색채권 잔액추이] (단위: 조 원)



Source: 한국거래소

정부는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을 22년 12월 공표했다.<sup>12</sup> 해당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사회적 채권에 해당하는 사회프 로젝트의 범위를 명시하며 사례 및 예시를 통해 발행사 및 금융원의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워싱방지를 위해 사전 및 사후보고 체계에 대한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한편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자율적으로 ESG 채권 평가 방법론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자율적인 평가 방법의 도입에 따라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23년 1월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 국제증권위원 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사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채권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촉진으로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그린워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 라인 은 신용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고안된 한계가 있다. 향후 전문컨설팅 회사, 회계법인 등 채권의 적합성 판단과 사후 검토 및 확인을 하는 다양한 기관에 확대될 수 있는 가이 드라인 제정을 기대하며, 또한 법규전환 등 규제공백(Loophole)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방법 공개조항

제4조(정책등의 문서화)

- ① 회사는 신뢰성 있는 ESG 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고려하여 ESG 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하도록 채택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준수한다.
2. 방법론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방법론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최대한 제공한다.
3. 적용 중인 평가방법론은 주기적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4. 방법론을 변경하기 전 변경사항과 ESG 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에 중요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평가대상회사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5.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되는 시점까지 ESG 채권 인증등급 또는 의견을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한다.
6. 등급평가 또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평가업무 기록을 유지한다.
7. 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 등의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적격한 정보를 분석한다.
8. 평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적격성과 고도의 정직성을 확보해야 한다.

Source: 금융투자협회

12 인프라 고도화 방안발표, 기획재정부 ('22.12.27)



### 3)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비재무적 측면으로 여겨지던 지속가능성(ESG) 이슈가 점차 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재무적 요소로 인식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기업들은 이미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등 널리 통용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활용하여 ESG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정보의 공시 기준을 표준화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다. 특히 투자자들을 중심으로는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고, 이러한 요청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응답하면서 투자자 관점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ESG 이슈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우리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표준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을 방지하면서도 책임 있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IFRS 재단이 제시하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공시 프레임워크



G20는 2015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 금융섹터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개발을 요청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는 2016년 1월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29명의 금융산업 대표 관계자들을 조직원으로 한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s Disclosures, TCFD)를 설립했다. 태스크포스는 20개국 128명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온라인 회의, 의견수렴 및 13번의 컨퍼런스 등을 진행했으며 2016년 12월 재무보고서(Financial fillings)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담은 권고안 초안(Draft recommendation)을 발간했다.

TCFD 공식 보고서는 2017년 7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담에서 전달되었으며 정상회담에 앞서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스, HSBC, 무디스, S&P 등 전세계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증권거래소, 기업 등이 TCFD의 권고안 도입에 대한 지지서명에 참여하여 기후변화재무정보공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TCFD는 권고안으로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관련공시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보공시 내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의 네 가지 영역에 걸쳐 아래와 같이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0. TCFD 권고안에 따른 주요 공시내용]

4개 핵심분야	내용
지배구조	1.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2.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대한 경영진 역할
전략	3.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4.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5. 각종 기후변화 시나리오상 조직 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6. 기후변화 관련 위험 확인 및 평가를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7.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8. 기후변화 관련 위험 파악,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를 조직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하는 방법
지표와 목표	9.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위해 사용하는 지표 10.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11.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직의 목표 및 목표대비 성과

2017년 공식권고안 발표이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TCFD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TCFD 유엔책임투자원칙(PRI)은 서명기관들에게 2020년 TCFD 권고안 채택을 의무화했으며, 앞서 언급된 EU의 CSRD, SFDR 또한 TCFD의 권고안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를 공시를 통해 밝히도록 상장사와 금융사에 주문하고 있다.

TCFD 권고안에 대해 전세계적인 기업들의 지지성명 또한 급격히 증가했는데 2019년 9월에는 금융규제당국자들의 녹색금융 협의체인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서 공식적으로 TCFD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2020년 1,000개, 2023년 현재 4,000개 이상의 기업이 TCFD 지지선언에 서명하여 지지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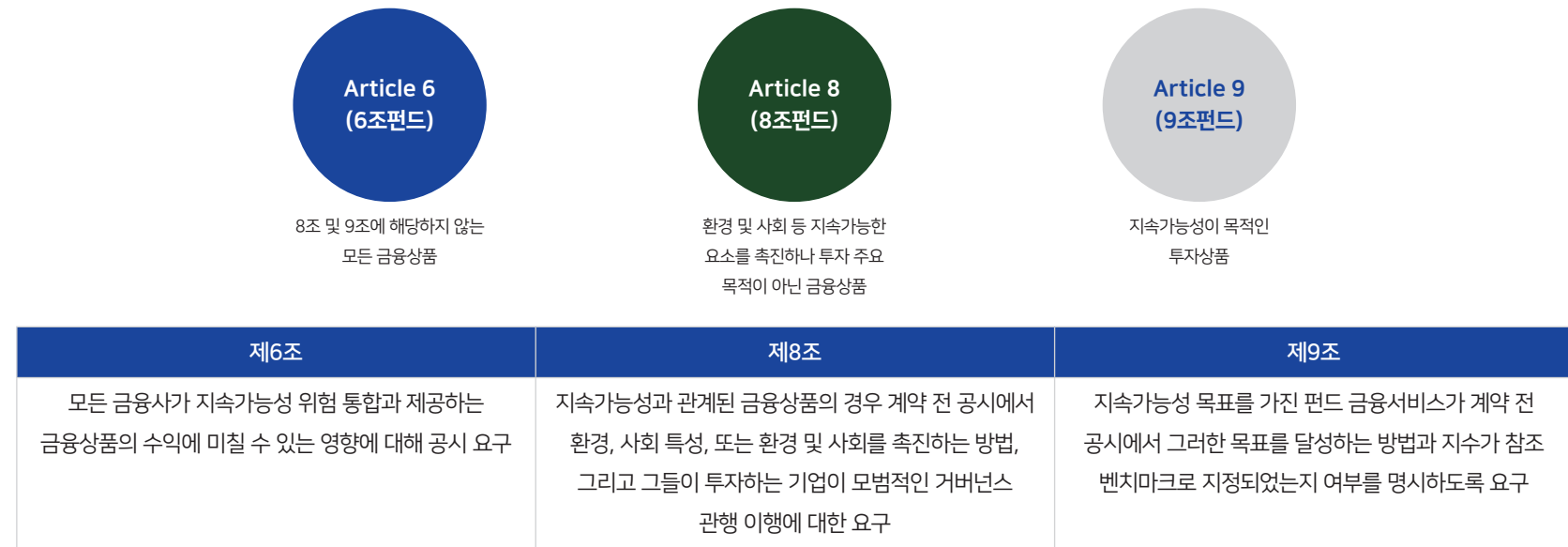
나.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은 EU 소속 금융기관들의 투자 및 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1년 3월 부로 발효되었다. 동 규정은 2018년 3월 발표된 지속가능금융실행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에 따라 금융기업들의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지양하고 기관의 금융투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에 악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 PAI)을 줄 수 있는 18개의 지

표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금융상품들을 ▲ESG와 관계없는 상품<sup>13</sup>, ▲환경 및 사회적 특성을 홍보하는 상품<sup>14</sup>, ▲지속가능한 투자와 밀접한 상품으로 구분하며 상품별 지속가능성 특성과 목표 정보 등을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1년 3월 10일부터 1단계 공시 규제(Reference Period)가 시행되었으며 2023년 1월 2 단계로 규제기준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이 시행된다. 규제기준표준은 금융상품의 ESG관련 위험과 임팩트, PAI 등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컨텐츠와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 투자사, 보험사, 은행, 연기금 등 모든 금융사가 SFDR에 따라 공시를 시행한다.

[그림11. SFDR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및 주요 내용]



Sourc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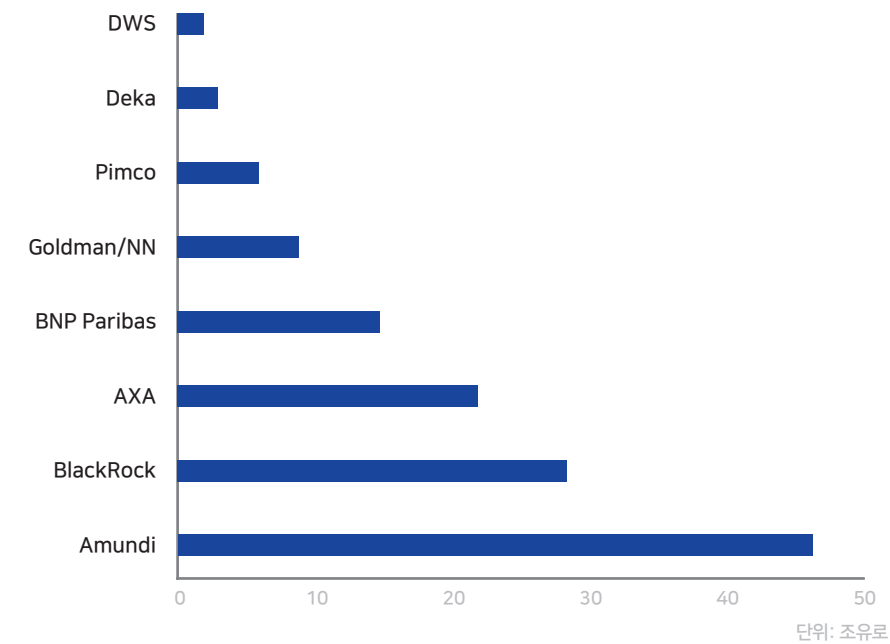
13 SFDR Article 8에 따라 8조 펀드로 지칭되며, 실무자들 사이에서 Light Green Fund로도 불리고 있음

14 SFDR Article 9에 따라 9조 펀드로 지칭되며, 실무자들 사이에서 Dark Green Fund로도 불리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부터 6월 30일부터 규제기준표준 도입에 따라 관련 데이터와 공시를 진행해야 하며, PAI(Principal Adverse Impact) 공시를 위한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2022년 데이터 수집을 준비해야 했다.

한편 2021년 SFDR 적용 이후 금융서비스를 평가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금융사들이 리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8조 및 9조펀드로 상품을 설정하는 경향을 보여 SDFR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기준표준(RTS)의 발표가 23년 예고되었고, 표준 발표직전인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금융 상품들의 다운그레이드<sup>15</sup>를 발표했다.

[자산운용사별 유럽 ESG 펀드 하향 규모]



[그림12]

[하향펀드 중 대규모 10개 펀드]

펀드명	AUM
NN Enhanced Index Sustainable Equity Find A	2,913
Deka MSCI USA Climate Change ESG UCITS ETF	958
NN Enhanced Index Sustainable Emerging Markets Equity F	939
AXA Optimal Income	924
NN Enhanced Index Sustainable Equity Fund	905
Agipi Actions Monde	801
NN Enhanced Index Sustainable Equity Fund DPF	652
Deka MSCI Europe Climate Change ESG ETF	586
Agipi Actions Europe	567
AXA Obligations Objectif Rendement Responsable	551

Source: Bloomberg (2022), Morningstar(2022), 자본시장연구원 (2023)

15 ESG요소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제9조펀드이며, 제9조펀드에서 제8조 혹은 제6조펀드가 되는 것을 다운그레이드라 함

금융사에 대해 SFDR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었으나 공시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23년 8월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EU회원국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다.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향후 제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시불이행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비판과 입지절하(Reputational damage)등 금융사의 간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다.

EU 산업분류체계, CSRD, SFDR은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로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EU 산업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구분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은 금융사의 경우 SFDR, 기업의 경우 CSRD 공시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CSRD 공시제도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EU 산업분류체계에 준거해 수익, 자본지출비용(Capex), 운영비용(Opex)과 같은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SFDR의 규제를 적용받는 금융사의 경우에도 EU 산업분류체계에 준거해 지표 공개를 해야한다. 즉 SFDR에 따라 EU 산업분류체계관련 금융공시를 위해서는 금융사가 투자하는 대상 기업의 CSRD 공시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CSRD와 SFDR은 연관되어 있는데 SFDR 공시보고를 위해 CSRD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유럽연합은 ESG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2014년 역대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공시 의무를 위해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를 법제화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2016년 12월까지 NFRD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을 거쳤으며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 4월 NFRD 개정안으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채택했다. 기존 NFRD는 공시의무의 적용대상을 대기업 중 종업원 500명 이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이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한계가 있었다. CSRD는 대기업 대상으로 ▲평균 근로자수 25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유로 이상, ▲매출액 4,000만유로 이상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할 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공시 적용 기업이 대폭 확대되었다.<sup>16</sup>

**[표11. CSRD 주요 내용]**

<b>적용 시기</b>	2023년 재무연도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적용 (채택: 2021년)
<b>적용 대상</b>	상장 대기업 중 아래요건 2가지 충족 1) 종업원수 250명 2) Turnover 4천만유로 3) Total Assets 2천만유로
<b>주요 공시 내용</b>	1) 기존 NFRD 공시 사항: ①환경보호, ②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③인권존중, ④반부패, ⑤경영진 다양성(성, 교육, 전문성 등)에 관한 정책, 정책이행 결과, 리스크, KPIs 2) CSRD에 따른 추가 공시 사항: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이해관계자 영향, 목표와 진행정도의 예측정보, 사회적·인적 자본 등 무형 자산

Source : 금감원(2022), "EU의 기후환경변화 대응 위한 Taxonomy 관련 규정 제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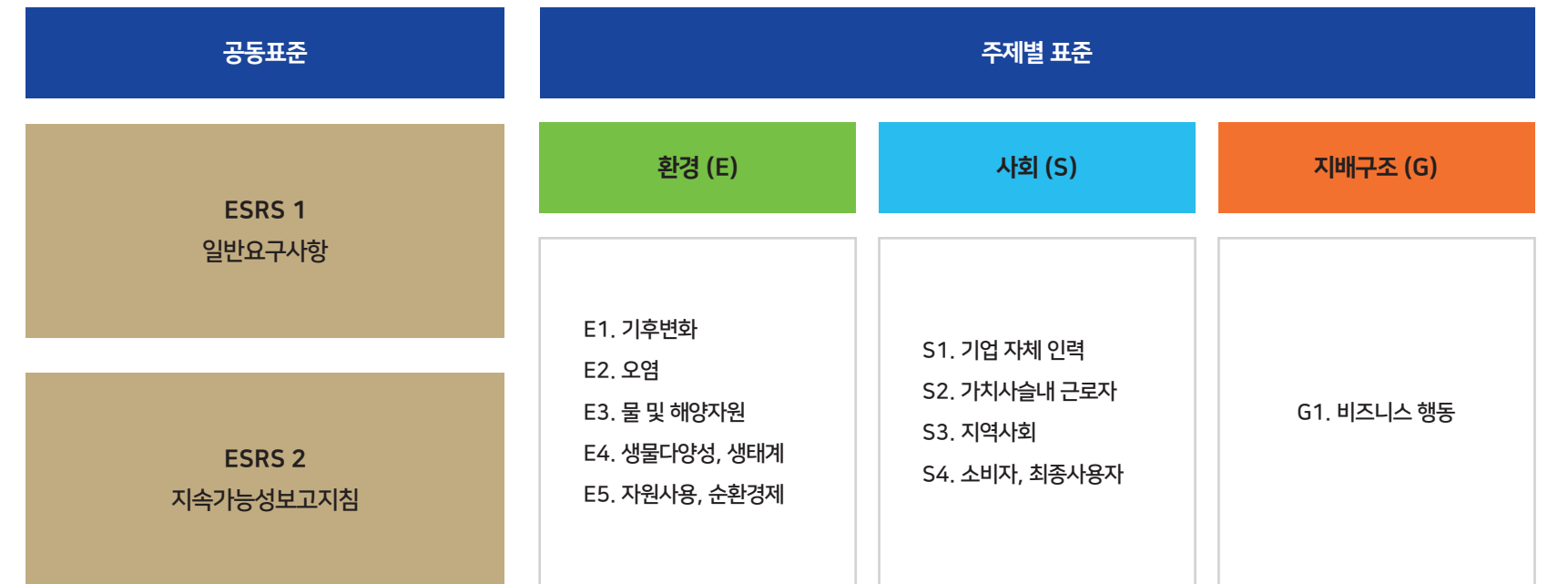
16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2022.05, KDB 산업은행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승인하며 각 EU 회원국이 18개월 이내에 자국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 의무화를 위한 법률인 CSRD를 이행하기 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으로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을 2023년 7월 확정하였다. EU의 CSRD 및 ESRS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EU 회원국에 기반을 둔 대기업과 상장기업(단, 소규모 상장기업 제외)으로 50,000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역외 기업의 자회사나 지점 등도 EU 내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적용된다. 이로써 국내에도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영향권 내에 들 것으로 분석된다.

EU의 ESRS는 공시 정보의 사용자를 직접적인 사업관계자(근로자, 협력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소비자(consumer, end-user), 투자자,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를 읽고 활용하는 모든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폭넓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financial materiality) 뿐 아니라 기업 활동으로 인해 수반되는 환경 및 사회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sustainability impact)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가 기반이 된다.

CSRD에 따른 ESRS 공시 규정은 일반 공시요구사항인 ESRS 1,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인 ESRS 2, 그리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 대한 주제별 표준 공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3. ESRS 주요 구성내용]**



Source: PwC 네덜란드 홈페이지 참고하여 UNGC 한국협회 번역



ESRS 1은 일반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의 목적과 부록을 담았다. 목적은 ▲공시 범위 ▲정보의 질적 특성 ▲이중 중요성 원칙 ▲지속가능성 실사 ▲가치 사슬 ▲계획 기간 ▲지속가능성 정보의 준비 및 발표 ▲지속가능성 진술의 구조 ▲경과 규정 등이다.

ESRS 2는 일반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목적 및 공시 요건으로 나뉜다. TCFD를 기반으로 한 4가지 영역(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을 반영해 ▲준비 근거 ▲거버넌스 ▲전략 공개 요건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대상 내용이 각 파트에 포함됐다.

주제별 표준에서는 조직이 다루는 주제 보고 요건이 제시됐다.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영역에 따라 각각 ▲ESRS E1(기후 변화) ▲ESRS E2(오염) ▲ESRS E3(용수 및 해양 자원) ▲ESRS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자원 및 순환경제)로 구성됐다. 사회 원칙은 ▲ESRS S1(자체 인력) ▲ESRS S2(가치사슬의 근로자) ▲ESRS S3(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ESRS S4(고객 및 최종 사용자)로 나뉜다. 거버넌스는 ▲ESRS G1(비즈니스 행동)으로 구성됐다. 각 주제별 표준의 경우 별도의 공시 요구사항이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 산업별 구체적인 공시내용(Sector-specific standards)과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 또한 별도로 개발 진행되어 공개 예정이다.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계 지침(2013/34/EU)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반시 현재 알려진 처벌 방안은 없으나 유럽연합 각 국가에 규정 위반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표준

다양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통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기점으로 공식 출범한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는 2023년 6월,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 최종안을 공개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140여 개국을 중심으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7월에는 세계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국제적인 증권 관련 규제를 정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ISSB 공시 표준을 공식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ISSB 공시 표준은 글로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ISSB 공시 표준은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의미의 재무정보라고 규정하며, 재무제표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통합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SSB 공시 표준은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로 구분되며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보고하도록 제시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적용 첫 해에 한해 일부 요구사항의 공시를 1년 유예할 수 있다. ISSB는 향후 2년간 S3, S4 등으로 불릴 추가적인 공시 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그 주제는 생물다양성,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 인적자원, 가치사슬의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12. S1 및 S2 요구사항 요약]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S2 기후 관련 공시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
적용 범위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시행일	'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	'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
경과 규정	기준 적용 첫해에 한정하여, - 비교정보의 미공시 허용 - 기후 외 사안에 대한 정보 미공시 허용 -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 시점이 아닌 차년도 반기 재무보고 시점에 공시 허용	기준 적용 첫해에 한정하여, - 이전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미공시 허용 -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 정보 미공시 허용 - GHG 프로토콜 외 측정 방법 사용 허용
핵심 요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Source: 한국회계기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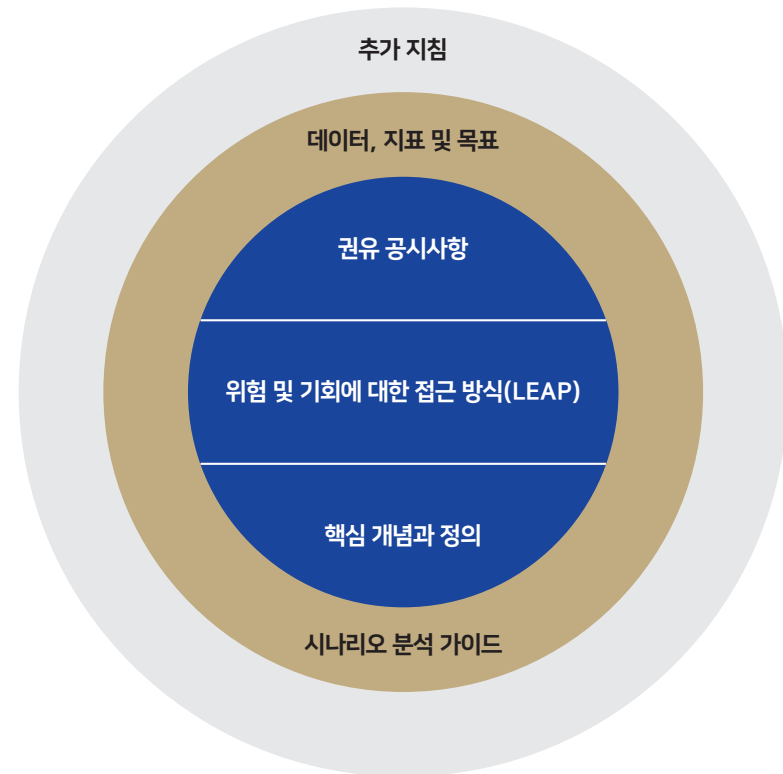
마.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 공시 프레임워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제로 기후변화에 이어 자연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1년 10월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가 출범하였다. TCFD와 유사하게 기업의 지속가능측면에 대한 공시적 측면은 유사하나 자연 및 환경에 집중된 공시로 설계되어 UNEP FI, UNDP, WWF 등 국제기구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TCFD가 기후위기에 초점이었다면 TNFD는 자연에 중점을 둔 프레임워크로 고려할 수 있다.

2022년 3월 처음 베타버전의 프레임워크 출간에 이어 수정버전을 같은 해 6월, 11월에 발간했으며 2023년 3월 마지막 수정이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그림14. TNFD가 프레임워크로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TNFD는 기업 활동의 자연 영향성과 의존성에 기원한 '자연관련 위험과 기회'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림 14와 같이 프레임워크로서 ▲핵심개념과 정의,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접근 프레임워크인 LEAP, ▲권유 공시사항, ▲데이터, 지표 및 목표, ▲추가 가이드선스와 같은 다양한 지침을 제공한다.

TNFD의 최종 권고안은 6개의 일반적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개항목은 ▲중대성에 대한 적용, ▲공시에 대한 범위, ▲기업활동의 주요위치, ▲다른 지속가능 이슈들과의 융합성, ▲공시를 위한 대상 기간, ▲원주민,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연관련 이슈 파악과 분석에 대한 참여와 같다. 일반적 요구사항과 TNFD의 공시 권고안은 TCFD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TNFD 권고안은 TCFD의 4개분야의 11개 공시 권고안을 모두 융합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3개의 공시사항을 추가해 총 14개 공시안을 제안하고 있다.

[표13. TNFD 공시 권고안]

지배구조	전략	위험 및 영향관리	지표 및 목표
자연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공개	자연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영향 제시	자연관련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	자연관련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지표 및 목표 공개
A.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 모니터링 기능을 설명	A. 조직이 식별한 단기, 중기, 장기의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 제시	A(i). 직접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조직 프로세스를 설명	A. 자연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와 관리에 적용된 지표에 대한 설명
B.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B. 자연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공급망,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전환 계획 및 분석을 설명	A(ii). 가치사슬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대한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조직 프로세스를 설명	B. 자연관련 의존성과 영향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지표 설명
C. 1)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와 2) 원주민, 지역 커뮤니티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및 참여 정책	C.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기업 전략의 탄력성을 설명	B. 자연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프로세스를 설명	C. 적용 지표에 도입된 목표설정 등에 대한 세부 설명
	D. 기업 활동, 공급망, 가치사슬과 관련된 주요 위치(지역)를 설명	C. 자연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특히 공시관련 4가지 분야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TNFD는 21년 출범이후 23년 9월까지 전세계 9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내에도 신한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등 5개기업이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표14. LEAP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b>발견 (Locate)</b>	Locate 단계는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중요
<b>자연관련 의존도와 영향 진단 (Evaluate)</b>	Evaluate 단계에서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산업분류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ENCORE라는 툴을 권고
<b>자연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 (Assess)</b>	Assess 단계에서는 자연자본의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노출, 의존 및 영향,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 후 시나리오 분석 통해 검토할 것을 권고
<b>자연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는 준비 보고 (Prepare)</b>	Prepare 단계에서는 SBTN(Science Based Targets Network)의 목표설정 방법(SBTs for Nature) 적용을 권고

바. 한국 ESG 공시제도 로드맵

[표15. ESG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

1단계(~25년)	2단계(25~30년)	3단계(30년~)
ESG 가이드선 제시 및 자율공시 활성화	지속가능보고서 일정규모 이상 거래소 의무공시	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며 ESG 책임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크게 3가지의 개선방안을 21년 1월 발표했다.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를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으나 포괄적으로 ESG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를 위해 여전히 기업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의무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까지 전(全)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 △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을 제시해 지속가능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 △ 이후 코스피 상장사 대상 지속가능보고서 단계적 의무공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스투어십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 개선방안의 후속 절차로서 한국거래소는 21년 1월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 제정을 공표했으며, 상장기업이 ESG 관련 주요정보를 수집하고 대외 공시에 활용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주요 지침으로 △ESG 개념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 △정보공개 원칙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과 공개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16. ESG 정보 공개 가이드선 주요내용]

가이드선 항목	주요내용
1. 목적	가이드선 제정의 목적
2. ESG개념	ESG 개념, 정보 공개 필요성
3.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	ESG 주요 이슈 관리를 위한 경영진 및 이사회 역할
4. 정보공개 원칙	ESG 정보공개를 위한 준수 원칙
5. 중요성	중요성 개념 및 평가 절차
6.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작성 절차
7. 공개지표	정보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 지표

금융위원회는 2022년에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 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을 발표했다.<sup>17</sup>KSSB는 ESG공시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내에 설립되는 위원회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KSSB는 올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내 스코프3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EU ESRS 주요내용 검토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현황 및 KSSB 기준반영 방안 검토 등 IFRS와 EU 등 글로벌 공시규제 대응과 국내 공시규제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ESG 금융 추진단 설립을 발표했다.<sup>18</sup> ESG 금융추진단은 ESG와 관련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ESG 공시·평가, △민간금융, △녹색·정책금융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원칙적으로 매 2개월에 1번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ESG금융추진단은 23년 11월까지 세번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ESG 금융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 ESG 평가기관 규율마련과 탄소배출권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17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보도자료 (22.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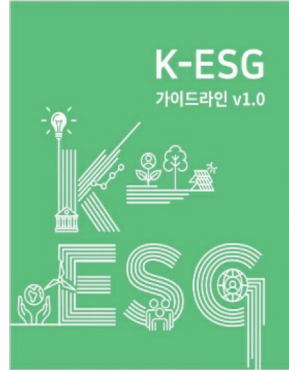
18 금융위원회「ESG 금융 추진단」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3.02.17)



**\* K-ESG 가이드라인의 특징**

- ESG 수준진단 기준 명확화
- 자가진단 가능한 추가설명 상세화
- 추가 진단항목을 통한 범용성
- 기업 외 이해관계자(투자기관, 평가기관, 정부기관 등)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

한편, 3차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으로 ESG 공시제도 로드맵 도입의 지연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TCFD, TNFD 등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가속화와 ISSB의 공시안 최종발표 등에 따라 3분기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임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5월 발표하였으나,<sup>19</sup> 올 10월 개최된 ESG 금융추진단 3차회의에서 도입 연기를 발표했다. 3차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향후 ESG 공시제도의 기준, 대상, 시기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sup>20</sup>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공시 기준을 참조하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ESG 제도 도입에 따른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의무화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6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며 △자율적 공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공급망 실사와 공시의무 등 도입방침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급증해 기업이 ESG 경영을 준비하고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sup>21</sup>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공통사항을 마련해 국내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측사(23.05.12) -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

20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3.10.1.6)

21 관계부처 합동발표 (21.12.01).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표17. K-ESG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주요 항목
정보공시(5)	●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
환경(17)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
사회(22)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지배구조(17)	●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K-ESG 가이드라인에 이어 후속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12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SG 정보공시 방식, 근무시간 준수, 정보공개 투명성 등 기초적 ESG 지표만을 선별해 새롭게 구성해 중소기업들의 EU 공급망 실사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업별 ESG 대응과 준비수준을 고려해 기초 진단항목과 심화 진단항목으로 체계를 이원화해 4개 분야(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표18.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구성]**

		정보공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기초진단	공급망 ESG 진단/실사 대응을 위해 필수 관리해야 하는 진단항목 산업 이니셔티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진단/실사 지표로 구성 12개 범주/25개 진단항목	기초 진항문항	0개 문항	10개 문항	11개 문항	4개 문항	25개
			4개 문항	18개 문항	32개 문항	6개 문항	60개
심화진단	공급망 ESG 진단/실사 본격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진단항목 산업 이니셔티브에서 요구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종합하여 구성 18개 범주/60개 진단항목	추가 진항문항	0개 문항	0개 문항	0개 문항	6개 문항	6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ESG 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도입

공시 정보와 더불어, 투자 시 ESG와 관련된 위험 및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ESG 등급 정보가 점차 널리 활용되고 있다. ESG 등급은 투자 전 심사(예: 포트폴리오나 펀드에 주식을 포함/제외 의사결정), 투자 후 분석(예: 투자 상품 또는 펀드의 지속가능성 평가), 또는 통합 투자(예: ESG를 투자 전략에 통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역시 ESG 등급을 활용하여 투자 기회를 찾고 운영 상의 리스크를 고려하며 ESG 요소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ESG 평가 등급은 투자자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리스크 성격이 변화하고 특정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려는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평가 및 데이터 시장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sup>22</sup>

그러나 ESG 평가 시장은 ESG 등급의 특성, 방법론, 데이터 출처, ESG 등급 제공업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ESG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훼손되는 문제점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ESG 평가기관을 규제함으로써 ESG 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IOSCO,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회사에 대한 권고사항 (2021.11)]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시장관계자들의 폭넓은 지원을 바탕으로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회사 자체의 내부절차, 데이터의 사용과 사용자를 위한 권고사항부터 피평가회사와 제공회사의 소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IOSCO는 ▲기초데이터의 신뢰성, ▲산정 방법의 투명성, ▲ESG 등급/데이터 신뢰성, ▲잠재적인 이해 상충 해소, ▲피평가 기업들과의 소통의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총 10개의 자율적·입법적 권고안을 발표하여 IOSCO 회원국이 각 개별 국가에서 ESG 평가기관 관련 규제 권고안이 발표되고 있다. 2022년 1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SG 평가기관 규제안을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일본 이 규제당국으로서 최초로 ESG 평가와 데이터 제공업체에 관한 행동지침을 발표하였다. 2022년 6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6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새로운 패키지를 통해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22년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 마련을 예고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IOSCO 권고에 동참하고 있다.<sup>23</sup>

### [EU, Sustainable finance package – ESG 평가기관 규정 (2023.6)]

EU는 2023년 6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새로운 패키지를 통해 ESG 평가기관 대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i) ESG 등급 특성 및 방법론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ii) ESG 등급 제공자의 운영 무결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ESG 평가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규정 초안에 따르면, EU 내 투자자 및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ESG 평가등급 제공자는 유럽증권시장당국(ESMA)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연간 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ESG 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이고 검증 대상인 평가 방법론을 사용할 것이 요구되며, ESG 평가 기관은 지속적으로 (적어도 매년) ESG 평가 방법론을 검토해야 한다. ESG 평가 활동에서 사용하는 방법론, 모델 및 주요 등급 가정에 대한 정보도 평가 대상 기업 및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편 ESG 평가 활동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ESG 평가 업체가 보다 독립적일 수 있도록 투자자 컨설팅, 신용등급 판매,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22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Sustainable Finance Package (13 June 2023)

23 Ibid.

### [한국,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 (2023.5)]

2023년 5월,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을 마련하여 국내 주요 ESG 평가사 3곳<sup>24</sup>과 자율규제로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규율하지는 않으나 평가 활동 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모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23~2024년에는 자율적으로 해당 가이드선을 운영한 후, 2025년부터는 가이드선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바탕으로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가이드선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장은 (1) 총칙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3)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4) 평가체계의 공개 (5) 이해상충의 관리 (6)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19.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가이드선의 목적과 적용 방식 등을 규율
제2장.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준법감시인의 지정 등 준법감시체제를 구축 - 이해상충방지 등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
제3장. 원천 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 정보의 관리	-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 -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임직원의 남용 금지
제4장. 평가체계의 공개	- ESG 평가방법론 및 기업별 ESG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를 공개 - 정보공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할 것을 요구
제5장. 이해상충의 관리	-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을 분리 -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운영 -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관리의무 부여
제6장.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 -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내용 등을 통보하고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를 규율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sup>25</sup>를 바탕으로 표 구성

24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25 금융위원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 제정 -, (2023.05.24.)

## [참고 1] 지속가능금융 주요 이니셔티브

### I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 Finance Initiative, UNEP FI)

- 창설: 1992년

- 웹사이트: <https://www.unepfi.org/>



UNEP FI는 은행, 보험사, 투자자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행동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 30년 이상 UN과 전 세계 금융 기관을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 아젠다를 형성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이 있으며 자산 규모가 170조 달러를 넘는 500개 이상의 은행과 보험사가 UNEP FI의 책임 있는 금융 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과 지속 가능한 보험 원칙(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그리고 UN이 소집한 3개의 탄소중립 연합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UNEP FI와 협력하여 업계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틴 아메리카, 북미 등 지역에서 리더십을 배양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관행을 발전시키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 I 글래스고 탄소중립금융연합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

- 창설: 2021

- 웹사이트: <https://www.gfanzero.com/>



GFANZ는 유엔 기후행동 및 금융 특사인 마크 카니(Mark Carney)와 COP26의 의장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Race to Zero Campaign'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GFANZ는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민간 금융 자산의 약 40%를 대표하는 금융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유엔(UN)의 Race to Zero에 참여하는 주요 금융 기관의 글로벌 연합<sup>26</sup>이다. GFANZ는 탄소중립 금융기관의 수를 증가시키고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모든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을 설립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GFANZ는 독립적인 부문별 연합을 구성하고, 금융 커뮤니티와 탄소중립 캠페인, 기후 과학자 및 전문가,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협력하고 있다.

<sup>26</sup> <https://www.oecd-ilibrary.org/sites/b0d62d2b-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b0d62d2b-en>



### I 탄소회계금융협의체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PCAF)

- 창설: 2015년
- 웹사이트: <https://carbonaccountingfinancials.com/>



PCAF는 대출 및 투자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공개하기 위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전념하는 금융 기관들의 글로벌 연합이다. 이 조화로운 회계 방법은 과학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고 포트폴리오를 파리 기후 협약에 맞추기 위한 기반이 된다. PCAF는 은행,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투명성, 책임성,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2년까지 주요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25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 I 적도 원칙 (Equator principles)

- 창설: 2003년
- 웹사이트: <https://equator-principles.com/>



적도 원칙은 프로젝트 금융에서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결정, 평가, 관리하기 위해 금융 기관이 채택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이다. 이 원칙은 책임 있는 리스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2021년 3월 기준 37개국 116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공식 채택했으며, 이는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의 국제 프로젝트 금융 부채 대부분에 적용된다. 2003년 6월 4일 워싱턴 D.C.에서 공식 출범한 적도원칙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수립한 기존 환경 및 사회 정책 프레임워크(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Framework)에 기반하고 있다.

### I SDGs를 위한 CFO 연합

- 창설: 2019년
- 웹사이트: <https://www.cfocoalition.org/>



코로나19 팬데믹으로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9년, 전 세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하는 최초의 UN 이니셔티브인 SDGs를 위한 CFO 연합을 창설하였다. SDGs를 위한 CFO 연합은 수조 달러의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CFO를 통해 기업 재무 전략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고 SDGs 투자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2023년 말까지 100명의 CFO가 선도 그룹 참여, 2024년 말까지 1,000명의 CFO가 CFO 원칙 서약, 2025년까지 SDG 연계 투자 및 SDG 연계 금융에서 수조 달러를 유치하고 2030년까지 10조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DG 통합 투자 및 금융에 관한 4가지 CFO 원칙과 관련 KPI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금융을 SDGs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SDG 통합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

원칙 1 SDG 임팩트 논리 설정	원칙 2 SDG 통합 전략 및 투자	원칙 3 SDG 연계 금융	원칙 4 SDG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팩트 논리(thesis) 작성</li> <li>· 지속가능한 솔루션들에 대한 실험과 개선</li> <li>· 지속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금융 조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자본 지출, 운영비용</li> <li>· M&amp;A</li> <li>· 해외직접투자(FDI)</li> <li>· 재생에너지 구매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기반금융 육성 (지속가능연계채권, 여신 등)</li> <li>· 혼합금융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관점의 가치창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li> <li>· 기업 지배구조를 활용해 SDG 책임과 투명성 제고</li> </ul>



## 기업 SDGs 투자 (Corporate Investment for the SDGs)

기업 SDG 투자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면서도 근로자 다양성과 인권을 비롯해 탄소 중립, 제품 내 재활용 재료 사용 등 일련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SDG 투자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마케팅, 인적자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예: 공급망) 이행을 위한 기타 내부 투자와 같은 운영적 지출(operational costs)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M&A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같은 외부 투자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은 여러 자본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통합 투자를 위한 회계는 물리적 자산 또는 금융 자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람(인적 자본), 지역사회 발전(사회적 자본), 환경 보호(자연 자본), 혁신(지적 자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 [SDG 금융을 위한 통합 모델의 장점]

#### 고유의 임팩트 논리를 촉진

기업은 자체 역량, 발자취, 운영 맥락을 기반으로 어떻게 SDGs에 기여하는지 고유의 임팩트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 이로써 SDG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기업은 기존의 투자 논리와 더불어 임팩트 전략을 시장에 홍보할 수 있으며, SDGs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임팩트 자본과도 경쟁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전환 모델

전통적인 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SDGs 연계 활동에 어떻게 쓰이는지와 관련해 책임감을 가지고 SDGs에 전념하는 기업들을 투자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 역시 또다른 목표이다. 이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 SDGs에 기여하지만 특정 투자나 단독 자산을 통한 기여와 구분할 수 없었던 기업의 어려움을 녹색·사회적·지속가능성 채권 시장을 통해 다룰 수 있다.

#### 기업 거버넌스를 활용

통합모델은 기존의 기업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자금과 투자가 임팩트를 창출하는 활동에 사용되는지 투자자에게 검증하도록 한다. 이 모델을 통해 기업은 주요 전략의 일부로서 고유의 임팩트 논리를 정의하고 이행한다. 임팩트 논리를 따르는 지 여부는 이사회 감독, 내·외부 감사, 대외 보고 등 기업 거버넌스 절차를 통해 모니터링 된다.

#### 모든 기업 재무를 SDGs와 연결

이 모델을 통해 기업은 용처제한형(use-of-proceed) 채권, 일반 목적(general-purpose) 채권, 자기자본 등을 포함한 SDG 전략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 SDG 채권의 규모 및 종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SDG를 테마로 하는 지분투자 시장도 발전시키게 된다.

Source: UNGC(2019)

## [참고 2] 투자·평가 시 UNGC 반영사례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은 다양한 글로벌 ESG 금융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ICMA(국제자본시장협회)는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전 채권발행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를 가입 여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사안 공개는 ICMA의 각 채권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정보를 담은 채권 정보 템플릿 (Bond information Templa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5. ICMA의 채권정보 템플릿: 채권 발행사의 UNGC 가입 확인여부 파악]

**What are the supporting regulations, standards, or frameworks for issuer’s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 and reporting?** *Some examples are listed below while it is acknowledged that others can be relevant. Tick the box “other” where appropriate and specify the reference.*

- |   |   |
|---|---|
| <input type="checkbox"/>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 <input type="checkbox"/>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
| <input type="checkbox"/>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 <input type="checkbox"/>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
| <input type="checkbox"/>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 <input type="checkbox"/>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
| <input type="checkbox"/> 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                        | <input type="checkbox"/> EU Regulation (NFRD-CSRD-SFDR, Taxonomy, ...)    |
| <input type="checkbox"/>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Standards          | <input type="checkbox"/>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 <input type="checkbox"/>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input type="checkbox"/> Other (please specify):                          |
| <input type="checkbox"/> <b>UN Global Compact</b>                                   |   |

Source: ICMA 자료 발췌

세계최대 자산운용사 Blackrock과 State Street Corporation의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검토를 하는 투자정책 혹은 스투어드십을 발표한적 있으며, 특히 Blackrock의 경우 자사 투자대상들의 UNGC 원칙 위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2019년 공개하였다. 또한 2023년 임팩트 관리를 위한 운영원칙 (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에 위반하는 투자사들에 대한 투자 지양 지침을 발표했다.

[그림16. Blackrock의 UNGC 원칙 위배자에 대한 투자 지양 지침 발표]

<p><b>BlackRock.</b></p> <p><b>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b></p> <p>BlackRock Disclosure Statement January 2023</p>	<p><b>BlackRock Global Impact Team Approach:</b></p> <p>In addition to documenting positive impact performance, our investment processes include the evaluation of negative externalities that matter deeply to us as impact investors. To evaluate “net impact,” we focus on the IMP’s risk dimension, which is one of the IMP’s five dimensions.</p> <p>Here, we incorporate ESG analytics into our research, engage with companies based on our proprietary ESG research and insights, and seek a holistic view of a business’ net impact. In addition, as a matter of policy, we seek to avoid investing in specific categories, including controversial weapons, tobacco producers, and all UN <b>Global Compact violators</b>. Based on our research on negative externalities, depending on the issue and the result of any engagement with the company, we can either avoid holding the company, change our position size, or maintain the position size, while engaging further with company management on our specific concerns.</p>
--	--

Source: Blackrock 자료 발췌


유사하게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를 활용해 유럽연합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분석을 금융연구진들이 시행했다. 2023년 2월 취리히 대학교 연구진들이 SFDR 규제에 적용 받는 펀드들을 분석한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에 위반하는 펀드 300여개를 발견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S&P 500, Nasdaq, MSCI 등 글로벌 벤치마크 및 지수를 운영기관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의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와 지수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다. 해당 지수들은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이행여부 및 위반여부를 평가해 특정기업의 글로벌 지수 편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MSCI, 'Global Norms Screens'

해당 지표는 공개 상장된 기업들과 채권발행자들이 국제적 기준에 준수하는 지를 평가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유엔 기업과 인권 지침(UNGPs), OECD 등에 대한 기업의 미이행 및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 기업이 연루된 관련 위반 혐의의 심각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합격(Pass), 불합력(Fail), 감시 대상(Watch List)의 시그널을 제공한다.

<b>OECD Alignment</b>	Fail, Watch List, Pass	
<b>UN Global Compact Alignment</b>	Fail, Watch List, Pass	
<b>UNGP Alignment</b>	Fail, Watch List, Pass	
<b>ILO Alignment - Broad</b>	Fail, Watch List, Pass	
<b>ILO Alignment - Core</b>	Fail, Watch List, Pass	

Source: MSCI 자료 발췌

### MSCI, 'ESG Screened Indexes'

MSCI의 ESG 스크리닝 지수는 기관 투자자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논란이 되는 민간용 핵무기 및 담배 관련 기업, ▲열탄 및 오일샌드 추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유엔 글로벌콤팩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자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는 ESG 투자의 세 기둥의 하나로 UNGC 원칙을 선택하여,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진행한다.

**E**

**Fossil fuel extraction**  
Companies deriving 5% or more revenue from thermal coal mining and unconventional oil and gas extraction.

**Thermal coal power**  
Companies deriving 5% or more revenue from thermal coal-based power generation.

**Arctic oil and gas**  
Companies deriving 5% or more revenue from Arctic oil and Arctic gas production.

**Palm oil**  
Companies deriving 5% or more revenue from the production of palm oil.

**S**

**Tobacco**  
Companies classified as producers or deriving 5% or more revenue from production, distribution, retail, supply and licensing of tobacco-related products.

**Controversial weapons**  
Companies with any tie to cluster munitions, landmines, depleted uranium weapons, biological/chemical weapons, blinding lasers, non-detectable fragments and incendiary weapons.

**Civilian firearms**  
Companies classified as producers of firearms and small arms ammunition for civilian market or deriving 5% or more revenue from distribution of firearms or small arms ammunition.

**Nuclear weapons**  
Companies involved with nuclear weapons: Manufacturers, providers of components or auxiliary services related to nuclear warheads and missiles; Assemblers of delivery platforms for nuclear weapons.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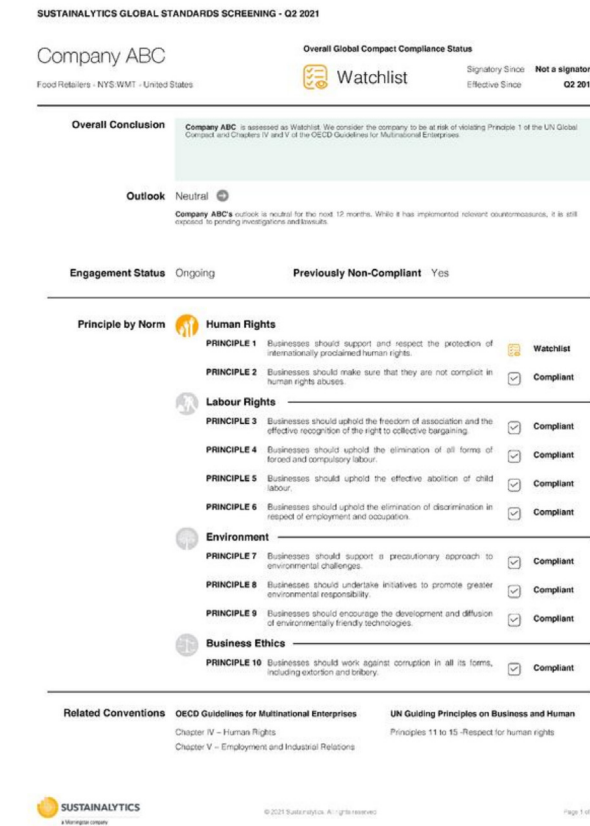
**UN global impact**  
Companies that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principles.

**MSCI ESG controversies**  
Companies involved in very severe ESG controversies and severe and very severe biodiversity, land use, and supply chain controversies. Also, companies not assessed by MSCI ESG Research on controversies.<sup>1</sup>

Source: MSCI 웹사이트

### Sustainalytics, 'Global Standards Screening'

S&P 등에 ESG 데이터를 제공하는 Sustainalytics의 글로벌 표준 심사는 이해관계자에 대해 기업이 미치는 영향 및 기업이 국제 규범 및 표준을 위반하거나 위반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평가한다. 이 때 UNGC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지침,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Principle by Norm	Human Rights	Labour Rights	Environment	Business Ethics
PRINCIPLE 1	Businesse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PRINCIPLE 2	Businesses should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PRINCIPLE 3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PRINCIPLE 4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PRINCIPLE 5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PRINCIPLE 6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PRINCIPLE 7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PRINCIPLE 8	Businesses should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PRINCIPLE 9	Businesses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PRINCIPLE 10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Source: Sustainalytics 웹사이트

### RepRisk, 'UNGC Violator Flag'

RepRisk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전 세계 15만개 이상의 기업 ESG 리스크를 분석하여 S&P, FTSE Russel, J.P.Morgan 등에 데이터를 제공한다. 최근 2년 동안 회사와 관련된 ESG리스크 사건을 기반으로, UNGC 10대 원칙을 1개 이상 위반할 위험이 높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UNGC 위반자 플래그'를 제시한다.



Source: RepRisk 웹사이트

### Nasdaq-100 ESG™ Index (NDXESG™)

Nasdaq-100에 소속된 기업중 Sustainalytics의 ESG 평가 충족요건에 맞는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지수인 Nasdaq-100 ESG 지수를 2021년 발간했다. Sustainalytics는 해당 증권들이 UNGC 4대 분야 10개 세부원칙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그림17. 2021년 Nasdaq-100 ESG Index의 평가에 따른 NDXESG지수 제외 종목]

Symbol	Nasdaq-100 ESG Reason for Exclusion
HON	무기판매로 인한 수익창출, 핵무기 관련 거래
ADI	무기판매로 인한 매출
EXC	핵에너지와 오일 및 가스부문의 매출
AEP	석탄, 핵, 오일, 가스 발전으로부터의 매출
XEL	석탄, 오일, 가스 발전으로부터의 매출
PTON	ESG 위험지수 판단 불명

Source: Nasdaq

### S&P 500 ESG 지수

S&P 500 ESG 지수는 S&P 500 지수 구성 종목 중 무기, 발전용 석탄, 담배 등의 사업 활동을 하거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따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S&P DJI ESG 점수에 따라 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2023년 2분기 기준, S&P 500 지수가 8.5% 상승한 데 비해, S&P 500 지수 기업 중 UNGC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반(反) ESG로 인식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XVV(ISHARES ESG SCREENED S&P500)가 9.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sup>27</sup>

27 홍명표, "한국ESG연구소, 글로벌 ESG투자 2분기 보고서 발표" 임팩트온, 2023년 7월 28일.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940>





# KB 금융그룹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 [ESG 경영 전략]

KB금융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ESG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ESG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았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ESG 경영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ESG 리더십을 그룹 경영 전략의 핵심가치로 삼고고객,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KB금융그룹은 그룹 탄소중립 추진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ESG금융 확대 전략인 'Green Wave 2030'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계층 및 성별 다양성 확대를 목표로 중장기 추진전략인 'KB Diversity 2027'을 수립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ESG 거버넌스 강화]

K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ESG경영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그룹의 ESG 부문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그룹의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위원회는 연간 기부금의 운영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ESG경영 관련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KB금융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ESG 회의체와 담당 조직을 운영하여 ESG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소개

금융기관은 ESG를 고려한 투자와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이행하여 탄소저감 및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금융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ESG 금융상품 선정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분기별로 'ESG 금융상품 협의체'를 개최하여 ESG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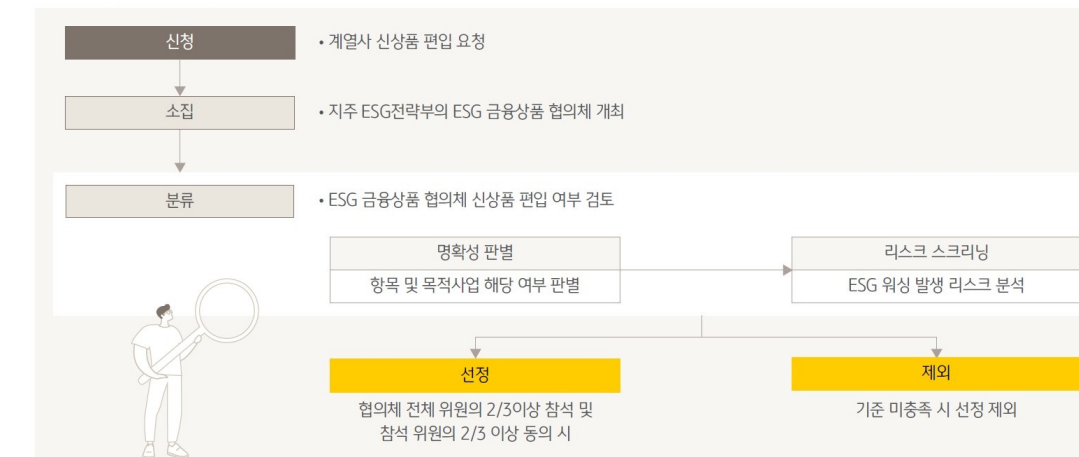
### [KB Green Wave 2030]

KB금융그룹은 ESG 금융 확대를 목표로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통합 등 각 분야별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직접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고, ESG 관련 프로젝트 투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KB금융그룹의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는 총 32.2조 원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합 부문에서 매년 ESG 금융상품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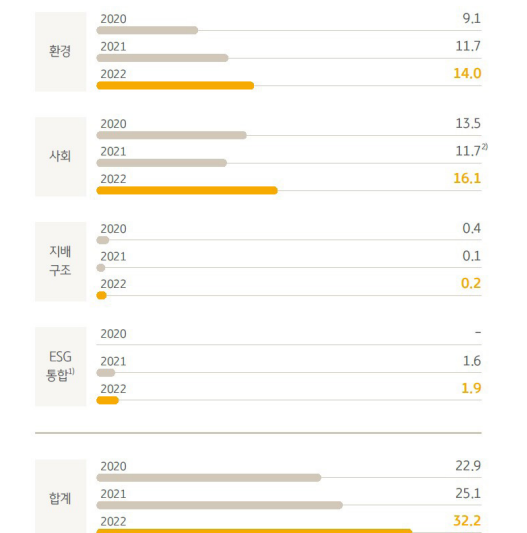
### [KB Net Zero S.T.A.R.]

KB Net Zero S.T.A.R.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내부배출량의 42% 감축, 2040년에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금융배출량은 2019년 대비 33.3% 감축, 2040년 61% 감축 및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목표 수립 시 SBTi 방법론에 따른 SDA방법론과 온도 등급 방식을 활용하여 2021년 10월 SBTi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SBTi 승인은 'KB Net Zero S.T.A.R.'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 ESG 금융상품 선정 프로세스



2020~2022년 ESG 상품 규모 (단위: 조 원, 전액 기준)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KB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리스크의 측정 및 공시, 탄소중립 목표 수립, 스트레스테스트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리스크 관리에 반영하는 등 KB금융그룹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후리스크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

KB금융그룹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ESRM)'를 통해 금융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및 환경·사회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ESRM은 산업별로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에 따른 영역 관리,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KB금융그룹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가 높은 산업과 기업에 투자와 대출을 제한하고, 사회공익에 반하거나 탈법행위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그룹의 비즈니스 전반에서 환경·사회 측면의 위험 요인을 제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리스크 관리 영역을 '배제', '기후변화 관심', '녹색산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그룹의 비즈니스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SRM에 따른 리스크 관리 영역	
리스크 관리 영역	내용
배제영역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한 활동 또는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제품/활동의 생산 또는 거래</li> <li>•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이 (불법)아동 노동을 포함하는 경우</li> <li>• 불법적인 도박/포르노 산업과 관련된 거래</li> <li>• 적절히 보호되고 관리, 감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의 생산, 교역, 사용 거래</li> <li>• 신규 석탄 채굴 사업 지원 또는 석탄 채굴 사업 확장에 관한 지원</li> <li>•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또는 석탄 발전소 증축에 관한 지원</li> </ul>
기후변화 관심영역	온실가스 다배출 등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업종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및 관련 익스포저 관리가 중요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 채굴업, 석탄화력발전업, 임업, 기타 고탄소 배출 산업</li> </ul>
녹색산업 지원영역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친환경 신성장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자원을 우대하는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주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및 적용 가이드'에서 지칭하는 활동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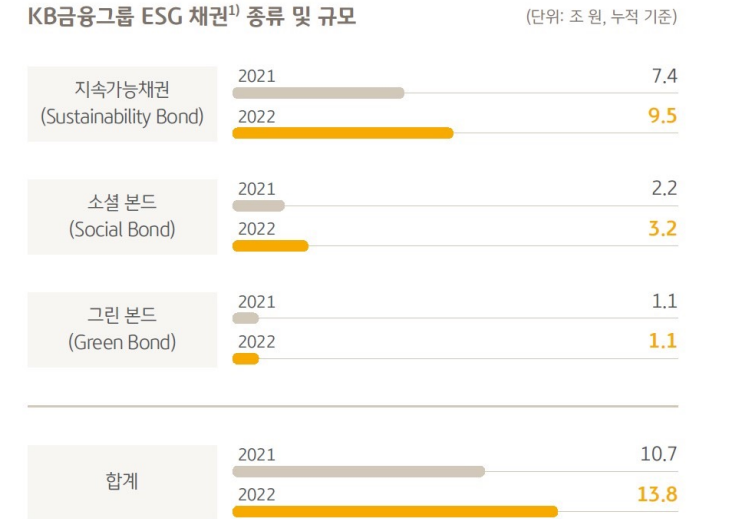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 [KB Green Wave\_ESG 우수기업대출]

KB국민은행은 'KB Green Wave\_ESG 우수기업대출'을 통해 ESG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금리·한도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지속가능연계대출 방식으로 대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KB국민은행의 KB Green Wave\_ESG 우수기업대출 잔액은 총 7,55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ESG 채권 발행]

KB금융그룹은 친환경 프로젝트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채권 관리체계 및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 당사의 ESG 채권 발행 금액은 13.8조 원입니다.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¹ 외화 채권은 당해 연도 12월 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친환경 투자 프로젝트 사례]

##### 스웨덴 구바버겟 풍력 발전사업

스웨덴 구바버겟(Gubbaberget) 육상 풍력 발전사업은 스웨덴 중부 예블레보리주에 약 74.4MW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KB국민은행은 총 사업비 98,200만 유로 중 4,200만 유로를 공동주선하고 900만 유로를 약정하였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5월부터 2053년 7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석 에너지 고갈 시에 대체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원동 풍력발전 프로젝트

원동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 약 37.6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발전소는 2022년 7월 상업 운전 개시하였으며, KB국민은행은 총 투자금액 1,153억 원 중 980억 원을 주선하고 320억 원을 약정하였습니다.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설비이용률 27.6% 가정 시 90,910MWh/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산원동풍력



제주한림



##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①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UN Global Compact)

KB금융그룹은 2022년 7월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며 UNGC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가치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 ② 넷제로은행연합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KB금융그룹은 2021년 4월 NZBA Foundation Group 서명 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은행을 대표하여 NZB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넷제로 리더십을 구축하였습니다.

### ③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 (GFANZ,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Zero)

KB금융그룹의 윤종규 회장은 2022년 6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제1차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AB)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A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친환경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④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K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였습니다. RE100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⑤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파리기후협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내부 배출량과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의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인 KB 금융그룹의 'KB Net Zero S.T.A.R.'는 지난 2021년 아시아 지역 금융회사 및 국내 기업 최초로 SBTi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 ⑥ 탄소회계금융협회 (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K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PCAF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공개하였으며, 2022년 11월에 PCAF Korea의 초대 의장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며 국내 금융배출량 산정 공식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⑦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KB금융그룹은 2022년 4월, 자연생태계 보호와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TNFD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KB금융그룹은 그룹의 활동이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파괴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5월에는 꿀벌 개체수 보전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본관 옥상에 도시양봉장을 조성하고 서울식물원 내 야생벌을 위한 Bee호텔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창경궁 일대에 밀원수로 이루어진 궁궐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강원도 홍천 지역에는 백합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등 개화시기가 서로 다른 밀원수 10만 그루를 식재 및 양묘 중입니다.

## 6. 기타

### [KB 사회적 가치 성과]

KB금융그룹은 기업 활동으로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성과관 KB금융그룹의 기업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도별 단일의 화폐금액으로 산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B금융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2022년 KB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당사가 2022년 한 해 동안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약 3조 5,485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KB의 사회공헌 활동 성과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등 그룹 계열사들의 핵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체계적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KB금융그룹은 금번 'KB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 체계 수립을 통해 향후 사회적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주, 고객, 근로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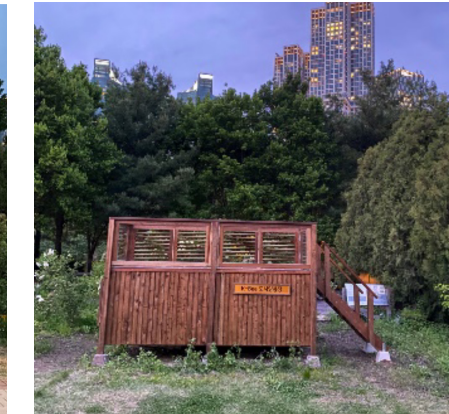
### [다양성과 포용성]

KB금융그룹은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고 포용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그룹 중장기 추진 전략인 'KB Diversity 2027'의 추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성된 다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인의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 보호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용할 수 있는 채용 기회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다양성을 존중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K-Bee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본관 옥상에 도시양봉장을 조성하고 서울식물원 내 야생벌을 위한 Bee호텔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창경궁 일대에 밀원수로 이루어진 궁궐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강원도 홍천 지역에는 백합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등 개화시기가 서로 다른 밀원수 10만 그루를 식재 및 양묘 중입니다.



K-Bee 꿀벌정원



K-Bee 도시 양봉장



밀원숲 현판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미션 아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금융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ESG 경영으로 뉴노멀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ESG 관련 최고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적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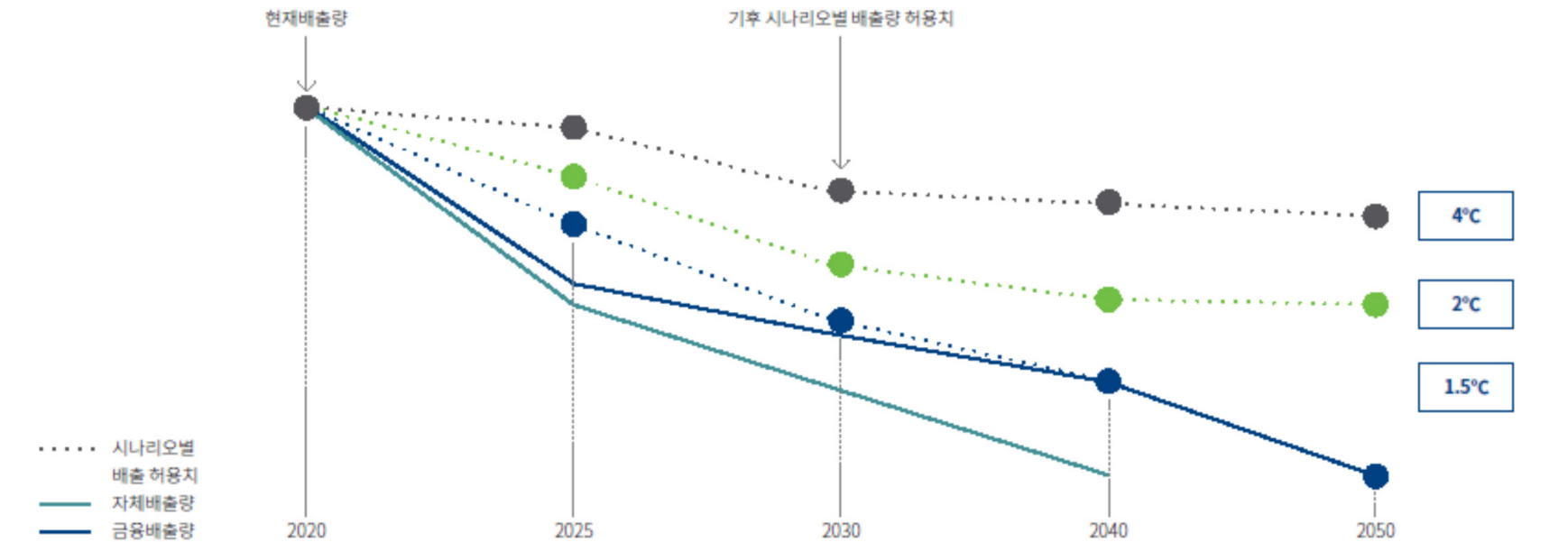


### 2.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소개

**중장기 목표:** DGB금융그룹은 파리기후협약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2030년 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지속가능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Net Zero 이행경로]

DGB금융그룹 넷제로 경로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ESG 통합시스템 구축(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원활한 ESG 경영 및 금융 실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ESG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2023년 7월 31일 1단계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SG 공시 및 성과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시스템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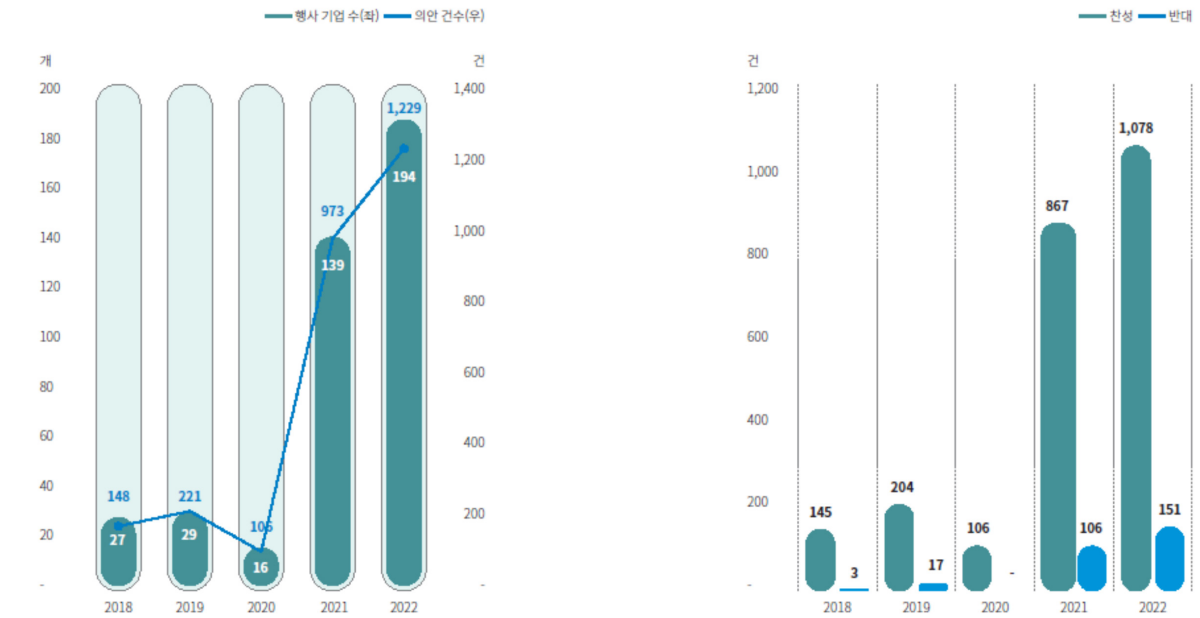
[ 은행 ESG 통합시스템 개요 ]



**K-RE100 이행(DGB캐피탈):** DGB캐피탈은 2023년 7월 31일 한국전력과의 녹색 프리미엄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사 중 최초로 K-RE100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하이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은 2020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적용하여 고객 자산의 중장기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81건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안별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수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하이자산운용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현황 ]



**ESG 평가기준 수립·적용(하이투자파트너스):** 하이투자파트너스는 2022년 6월 ESG 한국 모태펀드의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자체 ESG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외부 ESG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ESG 투자심의회를 출범하고, 모든 신규 투자 건에 대해 ESG 투자심의회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탄소중립 실천기업 금융지원(DGB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5억 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실천기업 보증대출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사업전환/기술혁신/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의 개별 한도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SG Grow up 특별대출(DGB대구은행):** 환경성 평가등급 우수기업을 포함한 ESG 경영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통해 ESG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745억 원을 ESG 경영 우수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ESG 사업자 우대통장(DGB대구은행):** ESG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ESG 사업자 우대통장을 2023년 6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대금 입금 실적 등에 따라 최고 연 1%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금리 수시입출금식 통장입니다.

**ESG 금융 인수/모집/주관(하이투자증권):**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보증권(P-CBO)의 인수/모집/주관을 통해 2022년 연간 약 1조 5천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전담 글로벌센터(DGB캐피탈):** 캐피탈 업권 최초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신용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6개국 대상 여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1,600여 명에게 약 1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2006년 7월부터 참여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 2006년 9월부터 참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2007년 2월부터 참여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2018년 9월부터 참여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2018년 10월 이행 서명, 2022년 9월 목표 승인

책임은행원칙(UN PRB): 2019년 9월부터 참여

탄소회계 금융연합체(PCAF): 2021년 10월부터 참여

생물다양성회계 금융연합체(PBAF): 2022년 9월부터 참여

#### 6. 기타

**지속가능금융 확대:** DG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금융 실적은 2021년 말 4조 5,402억 원에서 2022년 말 5조 9,40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금융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DGB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 실적(2021~2022),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DGB대구은행	33,606	34,981
하이투자증권	9,570	19,211
DGB생명	654	687
DGB캐피탈	1,179	1,984
하이자산운용	159	1,928
하이투자파트너스	234	615
그룹 합계	45,402	59,406



**대외 평가 및 수상:** DG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권을 선도하는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으로서 공신력 있는 국내외 평가기관에서의 관련 수상을 통해 그 실적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ESG 관련 평가 및 수상(2022~2023)]
· DGB금융지주, MSCI(모건스탠리) ESG 평가 AA 등급(Leader Group, 2022)
· DGB금융지주,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A 등급(지배구조 A, 환경 A+, 사회 A+, 2022)
· DGB금융지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 선정(2년 연속, 2022)
· DGB금융지주,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수상(누적 12회, 국내 최다, 2022)
· DGB금융지주,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KOREA 섹터 아너스 선정(누적 8회, 2022)
· DGB금융지주, 한국경영학회 최우수경영대상 ESG부문 수상(2022)
· DGB금융지주, 금융감독원 제17회 금융공모전 금융감독원장상 수상(2022)
· DGB대구은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3년 연속),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2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2022)
· DGB대구은행,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NCSI) 지방은행 1위 선정(2년 연속, 2022)
· DGB캐피탈, 제16회 국가지속가능경영(ESG) 컨퍼런스 노사협력 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2022)
· DGB캐피탈, 제17회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ESG 금융 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수상(2023)



# IBK기업은행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은행'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 지향점에 맞춰 경영 전반에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ESG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ESG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ESG 전략과 목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기업은행은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구축하여 중요 ESG 안건을 정기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ESG추진협의회와 본부 유관부서의 팀장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부서별 ESG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를 확장하였습니다.

## 2. 녹색금융 로드맵 소개

기업은행은 2022년 녹색금융 추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며 경영원칙 및 투자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녹색기반을 확립하고 은행 차원의 녹색금융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신규 대출 공급 시 녹색금융에 대한 비중을 13%로 확대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진취적인 목표를 수립하며 국책은행이자 기업시민으로서 모범적인 실천과 동시에, 축적된 경험을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에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혁신 품목을 기준으로 녹색활동을 분류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녹색 전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그린뱅크로 거듭나겠습니다.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투자 의사결정]** 기업은행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사회에 대한 위험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도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환경·사회 위험을 최소화한 책임 있는 투자를 하고자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검토부터 회수까지 투자 전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사회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 배출량 관리]** 기업은행은 자체 배출량(Scope1&2)과 함께 금융자산에 대하여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2050년으로 설정하고, 매년 보유한 금융자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인 PCAF 방법론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6가지 자산(기업여신, 발전PF,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주식, 채권)으로 구분하고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 관리]** 기업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로 나누고, 재무적으로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까지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에 의해 촉발되는 재무적 영향은 금융리스크 증가로 이어져 기업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후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고 재무적 측면의 파급력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ESG자가진단 Tool]** ESG경영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ESG경영을 환기시키고 전파하기 위한 「IBK型 ESG자가진단 Tool」을 출시하였습니다. 자가진단 Tool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어 '접근은 편리'하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표로 '진단은 차별화'되며, 기업 ESG 수준 '진단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ESG종합등급과 분야별 등급 및 이슈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ESG 관리 포인트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 전환을 위한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ESG컨설팅]**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해 ESG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ESG경영을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현장 방문을 통한 ESG경영 수준을 상세하게 진단하는 정밀진단과,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ESG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심화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동반성장 협약]** 기업은행은 협약 기관 및 대기업, 중견기업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저금리 대출 한도를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 ESG 동반성장협력대출의 한도를 1.9조 원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금융을 지원하였습니다.

###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 TCFD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 PCAF 탄소회계금융협회
- SBTi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 UNEP FI UN환경계획 금융
- UN PRB 책임은행원칙
- 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 CWI 세계은행 CWI 프로젝트
- GFANZ, NZBA 탄소중립 금융/은행연합
- UN FHI UN 포용금융 이니셔티브
- BNBP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 WEPs 여성역량강화원칙
- 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

### 6. 기타

**[인권경영]** 기업은행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중심 금융을 실천하는 행복과 희망의 동반자'로서 내부 직원만이 아닌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체계를 통해 인권경영 비전과 목표, 원칙을 수립하고 공유하였으며, 모든 임직원은 인권선언문의 행동규범을 기준으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업은행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경영]** 기업은행은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영시스템은 ISO 37001 & 37301의 요구사항에 따르고, PDCA 모델이 반영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 매뉴얼 하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준법 및 부패방지 활동에 대한 조직의 의지 및 실행을 증명하고 고객 및 협력사 등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규범준수·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

IBK기업은행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 UN SDGs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UNGC 가입 후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기업은행의 노력은 기업시민이자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소임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룹의 큰 발걸음을 모티브로 한 “Big Step for Tomorrow” 라는 ESG 비전을 설정 하였으며, ‘저탄소 경제체계 이행 촉진’,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투명성 책임경영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2030&60”, “Zero&Zero” 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0&60”은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Zero&Zero” 는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배출량 및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ZERO와 석탄프로젝트 파이낸싱 ZERO를 달성하겠다는 그룹의 약속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ESG 실천의지를 경영에 반영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등 ESG 현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해 그룹의 ESG전략과 정책수립 등을 결의하며 ESG 경영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각 관계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추진위원회 및 관계회사 담당임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실무위원회, ESG부서장과 실무자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실무협의체를 통해 관계회사간 ESG경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며 그룹의 ESG 경영철학이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에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 2.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소개

하나금융그룹은 ESG 비전 “Big Step for Tomorrow”하에 수립한 추진 목표 “Zero & Zero”를 달성하고자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인 지구 온도 1.5°C 상승 억제에 기여하고자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적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가이던스 및 PCAF 기준을 준용하여 「하나금융그룹 2050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과학적목표관리제 (Science-based target)를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scope1 직접배출량과 scope2 간접배출량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경우 scope3로 분류되는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 달성 이행 경로에 따른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10월 SBTi (과학적목표관리제 이니셔티브)로부터 공식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SBTi” 기준에 따라 사업장 탄소배출량은 2030년까지 42%, 2040년 75.4% 감축 (기준년도 2020년), 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은 SDA(고탄소 섹터별 감축방식)에 속하는 자산군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2.8%, 2040년까지 64.6%감축을 중간 목표로 수립하고, 이러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따라 2050년에는 탄소중립(탄소배출량 “0”)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ESG 비전 “Big Step for Tomorrow”하에 수립한 또 하나의 추진 목표 “2030&60”은 2030년까지 60조원의 ESG 투자, 여신 및 자금조달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금융 그룹은 “2030&60” 목표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투자 의사결정 시 환경·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관계사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서 ESG를 고려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2021년 8월 적도원칙에 가입한 이래 적도원칙을 기반으로 작성된 환경·사회관리체계(ESRM)를 실무에 적용하여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실행 할 경우, 해당프로젝트가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금융 프로세스를 토대로 환경·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ESG 채권 발행 확대, ESG 투자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친환경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나금융그룹은 2023년 상반기까지 ESG 금융 실적 누적 23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ESG 컨설팅

하나은행은 대한상의와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연계 대출 상품인 ‘하나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자금조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근로환경 점검 등 유럽 및 국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향후 ESG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을 통해 컨설팅 대상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스템 구축

하나은행은 환경부 제정 녹색활동분류 기준인 K-Taxonomy를 영업활동에 반영하여 포트폴리오상 ESG 금융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 하고자 Taxonomy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업대출 승인 시 자금용도를 파악하고 K-Taxonomy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그린워싱(Greenwashing) 이슈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ESG 채권 관리체계 구축

하나은행은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녹색금융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는 국제자본시장협회 (ICMA)가 제정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사회적 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외부 인증기관 (DNV) 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이 발행한 ESG 채권은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및 사업에 배분되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사회 및 환경적 영향 평가를 진행하여 투명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 하나 ESG 지속가능연계 대출

하나은행은 ESG 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을 위한 실천 과정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ESG 평가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얼마나 향상시키는지에 따라 금리 감면을 지원해 주는 상품인 '하나 ESG 지속가능연계 대출' 상품을 2023년 7월 출시하였습니다. 참여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ESG 평가를 받아야 하며, ESG 평가에 대한 검증 이후 하나은행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ESG 경영성과 확인서에 따라 최대 1.2% 내에서 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이후 1년마다 참여 기업의 ESG 평가 점수 변동에 따라 금리 수준을 재조정하게 되며, 최장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가능연계 대출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SG 인정기업 우대 제도

하나은행은 ESG 인정기업 우대 제도를 통해 이크레더블, NICE 평가정보 등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ESG 등급이 우수하거나, 산업인력관리공단 추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ESG 인정기업 우대 제도는 금리 인하 혜택을 주어 기업이 ESG 경영활동 개선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 상품

하나금융그룹은 '2023 HANA 인생여정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하나카드에서는 난임 진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 및 약국, 드럭스토어와 더불어 출산 준비 및 출산 이후 필요한 가구, 인테리어 서비스 영역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하나아이키움 적금'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수당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 금융지원

하나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소방관)'을 출시하였습니다.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동시에 금융권 최저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원큐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보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방관의 재해 사망과 재해 장애를 보장 하는 하나생명보험의 (무)소방관지킴이 안심보험을 1년간 무료가입을 제공하여 소방공무원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UN Global Compact

하나은행은 2007년부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로 참여하며 UNGC 10대 원칙을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 UNEP FI PRB

하나금융그룹은 2007년 UNEP FI에 가입하고 2018년에는 UNEP FI의 글로벌 30개 금융회사로 선발되어, 파리기후 변화협약과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UNEP FI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ility Banking) 제정사(Founding Bank)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UNEP FI 책임은행원칙 서명기관으로 가입하는 등 UNEP FI의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UNEP FI 아시아·태평양 지역 라운드테이블에 메인 후원사로 참여하였고, 대표이사인 함영주 회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ESG 비전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 TCFD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3월 탄소중립선언과 동시에 TCFD 지지를 선언하고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후 리스크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별도의 TCFD보고서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목표 및 지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PCAF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9월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에 가입하였습니다. 탄소회계금융협회(PCAF)는 금융기관들의 투자 및 금융거래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을 투명하게 측정 및 공개하도록 통일된 탄소회계 표준을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파트너십입니다. PCAF 가입 금융기관들은 동일한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공개해 객관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탄소 배출량 감축 이행이 가능해집니다.

### NZBA, SBTi

또한, 2022년 5월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제로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NZBA에 가입하였습니다. NZB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은행 간 리더십 그룹으로, 가입을 통해 사업장 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과학적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SBTi)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2022년에는 그룹의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 목표를 수립하여 공개하였습니다.



### TNFD, PBAF

기후변화대응 이슈를 생물다양성까지 확대하여 산림 면적 감소, 연안 생태계 훼손 등 새로운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2023년 4월 생물다양성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TNFD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와 PBAF (생물다양성 회계금융협회) 에 가입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TNFD와 PBAF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 지표 산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6. 기타

###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

하나금융그룹은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통해서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 가치 창출 사업인 ‘하나 파워 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근 MZ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200여개의 사회혁신기업에 청년 디자이너,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인턴을 매칭하여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구인이 어려운 사회혁신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를 통해서도 청년 창업가 550명을 육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중년 재취업 지원, 사회혁신기업 매칭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어린이집 100호 건립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하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미래 세대를 키우는 보육 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전국 100곳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회 가치 창출 활동입니다. 현재까지 (23년 8월 기준) 76여개의 어린이집 준공이 완료되었고,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육 취약 지역, 장애아, 복합기능을 가진 어린이집 등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현대캐피탈



## 1. 지속가능경영 비전 /목표 /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 [ESG 경영 추진 방향]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속 금융사로서 그룹이 지향하는 모빌리티 세상을 금융으로 선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적책임 메시지 “The Right Move for the Right Future(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움직임)”를 기업 경영의 모든 영역에 담고 “고객과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추구해야 할 의무이자,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현대캐피탈은 올바른 실천으로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기업의 구성원인 주주, 고객, 임직원, 사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견 개진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점영역 정의]

- 탄소중립 & 에너지 전환 : 탄소중립 체계 구축 및 목표 대비 이행률
- 친환경 제품 & 서비스 개발 : 친환경 상품 매출 증감 및 목표이행률, 활동
- 친환경 사업장 조성 : 폐기물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
- 다양성 & 포용성 증진 : 여성관리자, 장애인, 남녀급여비율
- 인권 보호 & 존중 : 사업장 인권 리스크 점검, 실사, 조치 및 활동
- 기업문화 혁신 : 조직문화 진단 점수, 기업문화 관련 활동
- 인재 성장경험 확장 : 교육시간, 교육투자, 인재 성장 프로그램
- 안전보건 내재화 : 재해율 증감, 안전보건 체계 구축 수준
- 고객경험&제품신뢰성 : 고객만족도 점수, 고객만족도 목표 대비 달성률, R&D 투자비율
-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 협력사ESG 점검, 실사, 조치율, 관리수준
- 사회공헌 임팩트 확산 : 사회공헌 비용, 운영체계, 사회/사업적기여도
- 미래 일자리 창출 : 직접 및 간접 일자리 창출
- 이사회 건전성 확보 : 사외이사비율, 여성이사비율, 이사 전문성
- ESG 기반 의사결정 체계 확립 : ESG 기반 경영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수준

**[ESG 거버넌스]**

현대캐피탈은 체계적인 ESG 경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ESG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ESG 전담부서 및 인력을 지정한데 이어, ESG 실무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23년에는 ESG 협의회를 신설하여 각종 ESG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SG 협의회는 ESG 관련 주요 임원으로 구성된 전사 단위의 협의조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CEO에게 보고합니다. 이렇듯 현대캐피탈은 CEO를 중심으로 ESG협의회, 전담부서에 이르는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경영에 관한 주요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ESG 경영 추진 방향성과 연계하여, ESG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목표와 성과를 KPI에 반영하여 전사적인 ESG 경영의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 현대캐피탈은 2015년 업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한 이래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금융권 최초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환경부 주관으로 2030년까지 모든 보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K-EV 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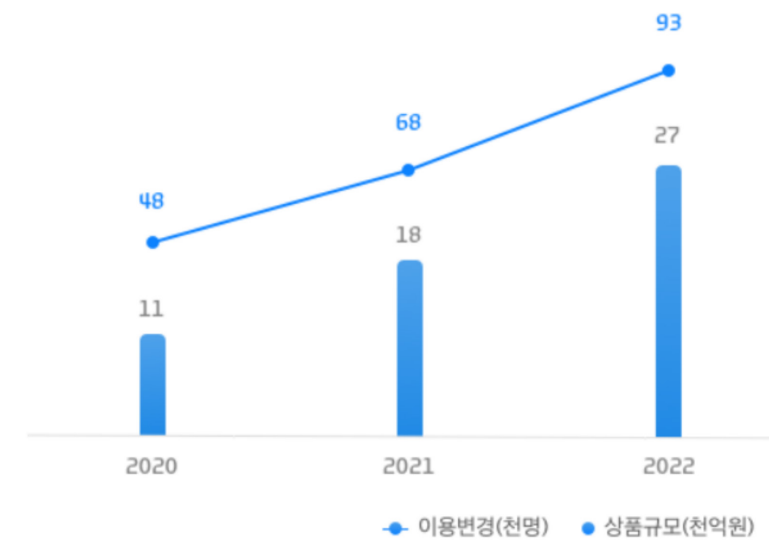
또한 전기차 전용 사전예약 플랫폼을 제공하고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리스 상품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전기차 전용 프로모션을 상시로 진행하며 전기차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아자동차의 전속 금융사로서 친환경 자동차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친환경차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현대캐피탈은 2021년 업계 최초로 법인 전용 충전기 구매 솔루션인 '전기차 충전기 리스'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캐피탈 전기차 충전기 리스는 충전기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충전기 구매부터 설치에 필요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기 임대 상품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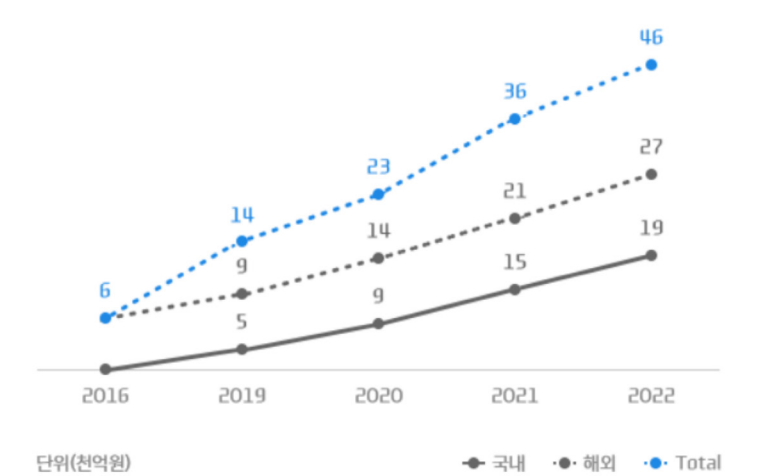
· 현대캐피탈은 2016년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누적 4조 6천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 중 2조 4천억원 규모는 외화로 발행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여신전문금융업권 최초로 2023년부터 도입될 K-Taxonomy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ESG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를 통해 현대캐피탈의 ESG 채권 발행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7월에는 국내 최초로 총 2,20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연계채권을 공모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3개년 친환경차 금융 상품 판매 규모]



[연도별 ESG 채권발행 규모]



### 3.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유엔글로벌콤팩트]

현대캐피탈은 본격적인 ESG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6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이하 UNGC)에 가입했습니다.

UNG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UN 산하 국제 협약 기구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0개국에서 약 20,0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UNGC 가입을 기점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공표했으며, UNGC의 회원사로서 10대 원칙 이행을 위한 ESG 경영 이행 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통해 매년 공개할 예정입니다.

#### [RE100]

현대캐피탈은 2022년 현대자동차와 함께 RE100에 가입하였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현대캐피탈은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REC\*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2045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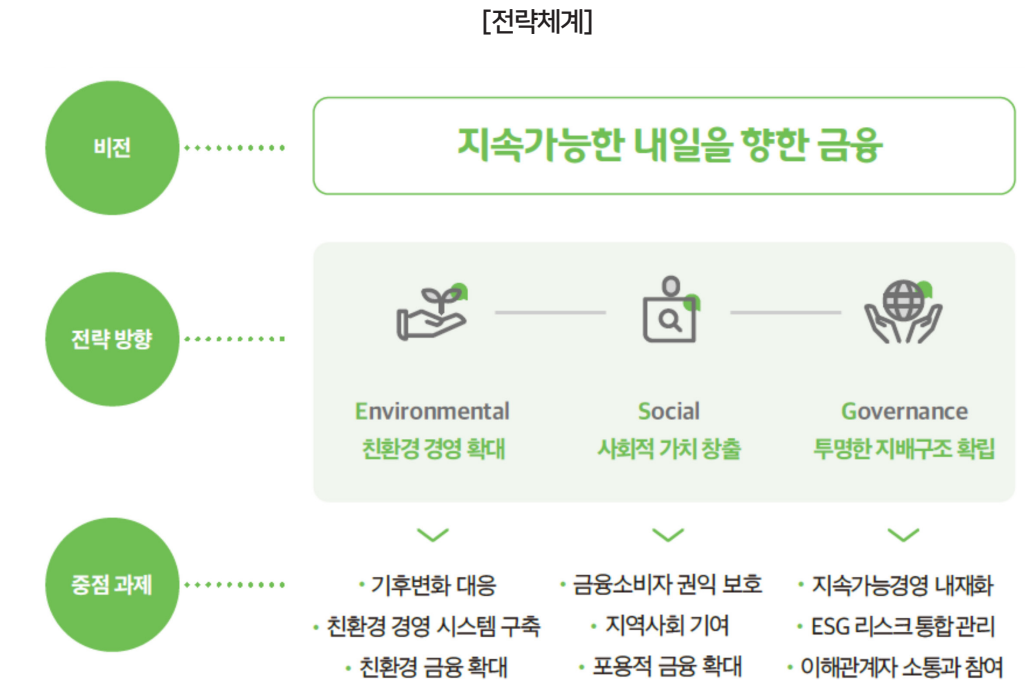
\*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의미하며, 인증서 구매만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애큐온캐피탈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 가. 개요

애큐온캐피탈은 '애큐온캐피탈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금융'이라는 지속가능경영 비전뿐만 아니라 '오늘 내일의 금융을 만나다'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도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일관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친환경 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이라는 3대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한 9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가능경영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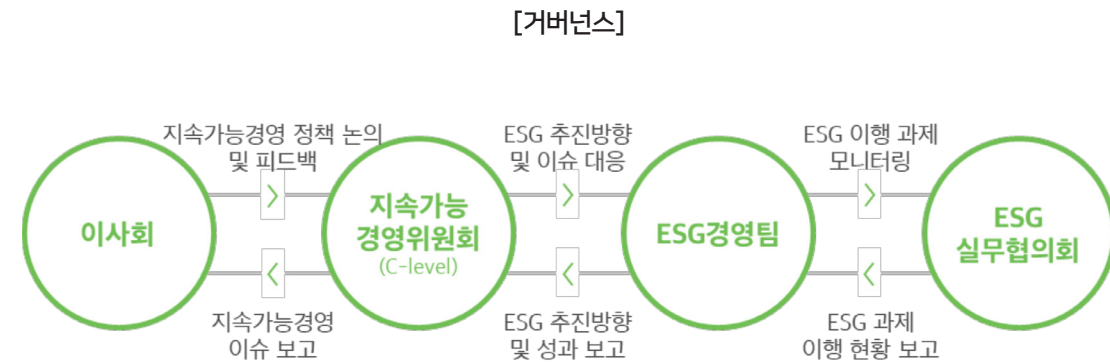


나. 중점 과제 정의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사용 저감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 친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자원 사용 데이터 수집 및 지속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성과 영향 평가 실시
- 친환경 금융 확대: 그린 파이낸싱 지원 사업 및 사회책임투자채권 규모 확대를 통해 친환경 금융 환경 조성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고객 정보 및 정보 보안 관련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강화
- 지역사회 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상생 협력 및 소통 강화
- 포용적 금융 확대: 취약 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 상품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지속가능경영이 경영 전략과 실행에 반영되고 조직문화를 통해 활성화
- ESG 리스크 통합 관리기후위기 등 비재무 요소를 통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이해관계자 소통과 참여: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강화

다. 거버넌스

에쿠온캐피탈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지속가능경영 전담부서인 ESG경영팀을 신설하여 ESG실무협의회의와 함께 ESG 과제 이행에 있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에쿠온저축은행과의 협업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정책이 전담부서인 ESG경영팀과 ESG실무협의회의로 체계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ESG실무협의회의는 실행과제 이행과 과제 제안을 하며 ESG경영팀을 통해 성과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채권 발행 및 투자

가. 지속가능채권 발행

에쿠온캐피탈은 2021년 국내 A등급 캐피탈사로는 최초로 1,40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해 녹색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1,700억 원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친환경 운송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 사업 등에 투자했습니다. 해당 목적으로 소진이 완료된 지속가능채권은 '지속가능채권 투자자안내문'을 통해 당사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사이트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나. 지속가능채권(ESG채권) 관리체계

에쿠온캐피탈은 지속가능채권 발행 및 집행에 대해 국내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ESG 채권 관리체계'를 통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	·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을 적합한 계획 사업 분야 및 대상에 배분
자금 관리	· 채권 발행 자금을 지원 대상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여 관리 및 운영 · '지속가능 금융 명부'로 발행 현황과 발행 대금의 사용, 성과 관리 · 채권 발행 대금은 적격 대상 사업에 할 되기 전까지 일반 자금 계좌에 유치, 미사용 자금은 자금 업무 규정에 따라 운용
외부 검토	·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채권 표준 관리 체계의 적정성 검토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업 현황 및 계획 사업을 파악하고 자금의 용도에 명시된 분야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후 리스크 관리 주무 부서에 제시 · 리스크 관리 주무 부서는 제시된 계획 사업에 대해 자금의 용도에 명시된 대상 분야와의 부합 여부, 환경 및 사회 개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금 배분 대상 사업을 확정
사후 보고	· 채권 발행 대금 지원 관련 정보, 발행 대금 중 미사용 금액 현황, 예상 또는 실현된 환경 및 사회 개선 기여도 등을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실적 보고서'로 공시

다. 지속가능채권 투자 사례

1) 친환경 금융

에코온캐피탈은 다양한 산업에 친환경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지게차/굴삭기, 해상풍력발전 산업, 신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 연료전지, 재활용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 수자원 및 폐수 관리,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많은 분야에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대출 및 투자 실행 현황(기준: 2022년 12월,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Total
배터리 지게차	16,827	15,257	32,084
전기차 부품업체 ABL 대출	5,000	-	5,000
천연가스 수송 선박	27,026	-	27,026
해상풍력발전 사업	14,000	5,000	19,000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3,743	70	3,813
목재파쇄기	905	1,920	2,825
신재생에너지 생산, 판매	10,000	-	10,000
친환경 소재 포장제품	5,000	-	5,000
재활용 폐기물	2,740	20,545	23,285
전기굴삭기	385	890	1,275
초절수 양변기 (WASCO사업)	1,052	-	1,052
온실가스 감축	3,000	-	3,000
화학약품 소비 감소	5,246	-	5,246
선박용 스크러버(황산화물 저감장치)	5,000	-	5,000
친환경 연료전지	5,000	-	5,000
친환경 스마트팩토리	-	5,000	5,000
폐기물 소각 재활용	-	2,000	2,000
2차전지 재활용	-	1,000	1,000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재활용	-	5,000	5,000
Total	104,924	56,682	161,606

2) 포용적 금융

에코온캐피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포용적 금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금융 파트너로써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활발한 금융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공정을 개선하고,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사업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 203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금융의 역할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도 금융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 포용적 금융 실행 현황(기준: 2022년 12월,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Total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5,788	34,841	60,629
Covid지원(원금유예 및 대환대출 시행)	10,547	8,524	19,071
기타(도시재생사업, 준공영제 시내버스 지원 등)	32,400	15,000	47,400
Total	68,735	58,365	127,100

### 3. 향후 계획

2040 Net Zero를 선언한 애큐온캐피탈은 중장기 과제로 기후리스크 체계화를 수립하고 금융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Net Zero 달성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PCAF 및 SBTi에 가입하고 TCFD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PCAF 원칙에 따라 3년내 금융자산의 금융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며 24년 하반기에는 SBTi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검증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정부 지침에 따라, 기후리스크에 대한 사업환경 영향 및 전략 분석,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자 및 관리 체계 구축, 기후리스크 식별 및 평가, 포트폴리오별 기후리스크 관리,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 공시 등을 과제화하고 역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성명서 수여식



애큐온캐피탈 TCFD 지지 선언

### 4.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UNGC (2021.10)
- PCAF (2022.10)
- TCFD (2023.08)
- SBTi (2023.08)

# 롯데카드

## 1. 지속가능경영 비전 /목표 /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 [ESG경영 추진 방향]

롯데카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본업과 연계하는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 공동체와 지구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은 당사 ESG 브랜드 '띵크어스 - THINK US & EARTH'를 런칭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롯데카드는 ESG 자율공시대상 기업임에도 ESG경영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2년 4월 ESG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올해 1월 전사적 실행력 강화를 위해 임원으로 구성된 'ESG협의회' 설치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5월 ESG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사의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2.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Paperless 업무 체계 구축]**

롯데카드는 업무 환경에서 종이를 없애는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 신청서 없이 태블릿 PC만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사용량을 줄이고 있으며, 매일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카드명세서도 종이명세서가 아닌 이메일, 롯데카드 앱, 모바일 문자 등 다양한 전자 명세서 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고객 디지털 업무 전환 강화]**

롯데카드는 전자가입신청서를 통해 개인회원 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서류 신청서를 계속 사용해 왔던 법인영업 업무에서도 태블릿 PC를 도입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홍보물 제작]**

롯데카드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브랜드 홍보물인 다이어리와 캘린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쇄 제작물의 경우 제작 과정 중에서 많은 탄소 배출량이 나올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롯데카드는 앞으로도 전사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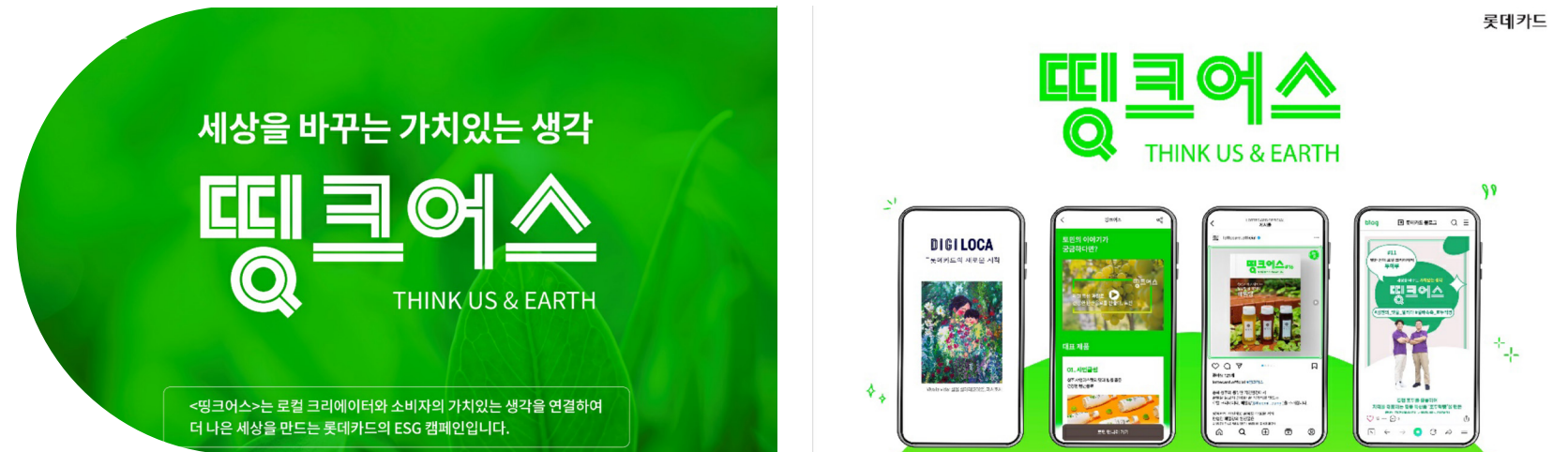
### 3.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 [ESG채권 발행]

롯데카드는 사회적 책임, 친환경 투자 목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하여 중,저신용층 대상 중금리 대출과 전기차/ 수소차 할부 구매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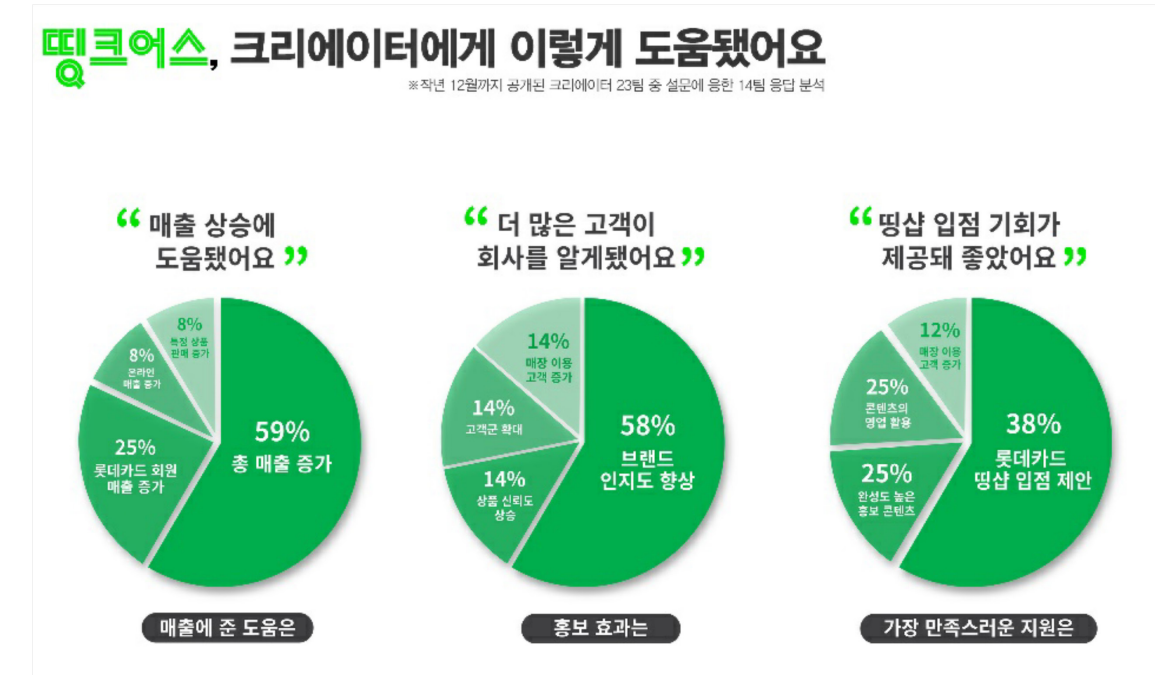
최근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친환경차 판매금융 지원 및 친환경 운송수단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포용적 금융활동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전파하겠습니다.

#### [띵크어스]



롯데카드는 가맹점과 소비자를 결제 기반으로 연결하는 카드업의 특성과 빅데이터를 자산으로 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ESG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시작된 롯데카드의 ESG 캠페인 '띵크어스'입니다. '띵크어스(THINK US & EARTH)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고객의 가치 있는 생각(THINK)을 롯데카드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연결시켜 지속 가능한 사회(US)와 지구(EARTH)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과 친환경 상품 판매, 지역민 고용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회적 기업인 '로컬 크리에이터', 잠재력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인 '히든 크리에이터'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23년 9월까지 로컬 크리에이터 40팀, 히든 크리에이터 11팀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롯데카드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우수한 상품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채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집중해 '알리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남 고흥에서 지역민을 고용해 나물 등의 식품을 판매하는 '담우'는 캠페인 참여 후 월 평균 매출이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한, 디지코 앱을 디지털 갤러리처럼 활용해, 가장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앱 시작화면에 히든 크리에이터 작가들의 대표작을 전시하여 작품 홍보,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전용 쇼핑몰 '핑크'에 최저 입점수수료를 적용하여 입점시켜, 부담 없이 새로운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월 이들을 위한 전용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마케팅 비용은 롯데카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점 업체들은 직전 3개월 월매출 대비 최대 16배 이상 눈에 띄는 매출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활용한 친환경 굿즈를 제작하여 고객에게 선보이는 것인데요, 페플라 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로 만든 가방, 와인스토퍼, 스카프, 쿠션 등을 <오스틴 리 : 패싱타임> 전시회에서 선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크리에이터에게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판매 수익금 쉐어를 통한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며, 일부 수익금은 관련 단체에 기부하여 사회적 약자나 환경을 돌보는데 쓰일 계획입니다. '23년 9월에는 ESG를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돕기 위한 모집 사업 '핑크어스 파트너스' 를 진행합니다. 롯데카드는 최종 선정된 팀들에게 총 1억원 상당의 사업 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및 브랜드 마케팅을 약 1년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모집 사업은 매년 진행하여 ESG 실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에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착한 기업을 소개하여 가치 소비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롯데카드 '핑크어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참여 업체들의 매출 상승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오스틴 리: 패싱타임 - 전시회 및 굿즈]



[핑크어스 파트너스 - 모집 공고 포스터]



#### 4.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롯데카드는 ESG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고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22년 6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습니다.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투자과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한다.' 지난 2021년 초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재정비하며 수립한 ESG경영 미션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발굴하고 투자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ESG경영의 전사적 실행력 강화를 위해 같은 해 3월 ESG 관련 최고이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 설립과 함께 최현만 회장과 C레벨로 구성된 ESG임원협의회, 그리고 ESG실무협의회 및 ESG&IR팀으로 이어지는 4단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3대 핵심영역으로 설정, 각 영역별 중점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을 설정한 'ESG 정책 프레임워크(ESG Policy Framework)'를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이 수행하는 모든 투자 및 자문 의사결정 과정에서 온실가스배출,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환경, 사회적 리스크(ESR)를 식별하여 회사의 평판 및 재무적 손실로의 확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환경 사회 정책 선언문(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Statement)'을 수립하였습니다.

#### 2.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소개

미래에셋증권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중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달성을 지원하는 금융을 '지속가능금융'으로 구분하여 지난 2021년부터 집계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체계를 갖춘 2021년 초 2025년 지속가능금융 제공 목표 10조원 선언 이후 ESG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1년만에 15조원을 돌파하며 조기달성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목표를 45조원으로 대폭 조정하며 국내 ESG 금융시장의 기반 마련과 함께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상반기 말 기준 지속가능금융 제공 실적은 약 29.2조원으로, 2025년 목표까지 약 65% 달성했습니다.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설명드린 '환경 사회 정책 선언문(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y Statement)'을 현재 모든 투자와 자문 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적 영향 수준에 따라 투자 건의 위험등급을 '상', '중', '하'로 분류하며, 리스크 완화 또는 해소가 필요할 경우 투자조건에 보완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동안 미래에셋증권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ESR등급 검토 수는 총 309건이며, 2022년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의 석탄 익스포저는 0%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투자자산포트폴리오 등 환경데이터를 관리하여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집계한 Scope3(기타배출량) 내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에 포함되는 커버리지 자산을 올해 상반기 확대하여 데이터 산정을 정교화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자 활동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며 불필요한 문서 사용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외 자동소등도 오후 10시에 7시로 앞당겼습니다.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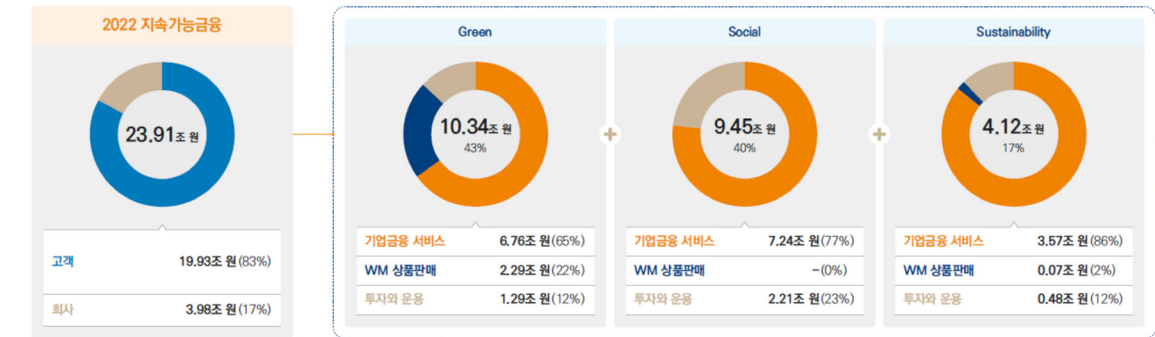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기업의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조달 및 자문, 주선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니즈에 맞는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의 ESG채권 대표주관사로 참여하였으며, 2021년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 PF 자문에 이어 2022년 여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적 주택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ESG 투자전략에 기반한 펀드 및 ETF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K-뉴딜(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신재생에너지(2차 전지), 클린테크(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기술) 등의 테마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은 회사 고유자산 및 고객자산 운용 시 경제적 수익성과 함께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종합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재생에너지 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 및 금융자문 제공, RE100 이행을 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와 합작 투자법인 '테라파워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임파서블푸드(대체육 식품기업) 지분투자, 중국 전기자전거 제조기업, 2차전지 소재 기업 등에 대한 상장 전 지분투자(Pre IPO)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전세계에 걸쳐 친환경 빌딩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외 신성장, 벤처투자조합, 중소혁신기업 등에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국내 금융업 최초로 지속가능 외화채권 3억불 발행에 성공한 데 이어, 2021년 해외 녹색채권 3억불, 국내 사회적채권 1,000억원 등 ESG채권을 지속 발행하며 친환경,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에 배분하였습니다.



###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미래에셋증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재무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난 2021년 초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Climate Engagement)'을 지속가능경영의 3대 핵심영역 중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해 9월 국내 금융업 최초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여 2025년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RE100 이행의 시작으로, 2023년 2월 태양광 전문기업인 진양에스엔지의 자회사인 (주)썬셋에너지와 국내 금융업 최초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3월에는 테라파워와 PPA전환부음선을 포함한 REC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 탄소회계금융협의체)에서 제시하는 자산유형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경우 기업대출 및 투자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 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 해당 배출량에 대한 집계 체계를 보다 고도화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선언한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올해 2050 넷제로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각 원칙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현황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 \*b KB증권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KB증권은 KB금융그룹의 전략방향과 연계된 ESG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와 ESG 투자 분야의 선도적 지위 확보의 핵심으로 'ESG+(투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에 충실함과 동시에 금융투자회사로서 지속가능금융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2020.12월)하고, 전사 전략과 연계된 ESG경영을 추진하고자 전략기획부 내 ESG전략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관련 부서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ESG 전략과 주요 과제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ESG 전략과제를 12개로 세분화하여 모든 부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ESG 정보 제공 및 전문적인 이슈분석을 위해 리서치센터 내 ESG솔루션팀을 신설하여 기업들에 대한 ESG 분석을 지원하고 투자 전략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소개

KB증권은 그룹 ESG 전략목표인 'Green Wave 2030'에 연계하여 ESG 금융상품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4,290억원, 2021년 9,257억원, 2022년 12,668억원으로 실적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ESG 심사/리스크 체계를 마련하여 진정성 있는 ESG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G금융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ESG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 및 대체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친환경에너지 및 미래모빌리티 등 인프라 대출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DCM 1위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분야를 선점하여 ESG채권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ESG 생태계에 보다 깊이 참여하고 시장 확장에 기여하고자 'ESG 가치 확산'을 목표로 정해 외부와의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팩트 투자를 위한 펀드를 결성하고 소셜벤처 투자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등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그들과의 다양한 연계 활동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ESRM)을 기반으로 ESG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사회적으로 영향 및 위험노출도 등을 감안하여 관리영역(배제/유의/관심/지원)을 구분하고, 대규모 PF 취급 시에는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를 통해 관련 위험 및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 및 업무 Process를 개선하여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복사용지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2년에는 연간 복사용지 사용량을 273만장(1,583만→1,310만) 감축하였습니다. 모바일 상담Tool인 KB able Partner의 업무를 확대하여 2022년에는 연간 약 11만매의 종이를 절감하였고,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디지털 DM 전환 비중을 2019년 47%에서 2022년 69%로 상승시켰습니다. 친환경 차량(전기차/하이브리드)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2022년 86대로 전체 중 63%가 친환경차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모니터 절전, 스마트 절전 플러그, 점심시간 소등, 냉난방 온도 준수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탄소배출권 분야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ESG생태계 및 탄소중립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거래시장(K-ETS)에 참여해 탄소배출권의 시장 유동성 증대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STO 상품화 등 및 글로벌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국내외 배출권 위탁 및 중개매매 등 다양한 사업기회 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임팩트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ESG 투자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케이비증권 ESG 가치확산 투자조합' 펀드를 결성하여 경쟁력 있는 ESG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업 파트너와 사회혁신 파트너로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통해 ESG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 ■ ESG 금융상품 확대를 통한 ESG금융 리더 입지 강화

- 2020년 4,290억원, 2021년9,257억원, 2022년 12,668억원으로 매년 증가
-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친환경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 ESG 국내외 우수 펀드 발굴·공급
  - 기업금융 : ESG 업종 대상 인수금융 및 M&A 자문, 리서치센터와 협업하여 유망기업 발굴
  - 부동산/대체투자 : 태양광 발전·연료전지·수소발전 PF 주관, 정부 주도 사회공헌 사업 참여
  - ESG상품 : ESG 테마의 시장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며, 분기별 ESG 추천펀드를 선정·제공

##### ■ ESG채권 발행 시장 선도

- ESG채권 발행 주관 시장점유율 2년 연속 1위
- 국내 최초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 주관 ('23년)
  - 지속가능연계채권 :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이자율과 만기상환금액이 변동

##### ■ 탄소배출권 시장 적극 참여

- 탄소배출권 거래중개 회원 자격('21년)을 부여받아 자기매매 형태로 할당배출권을 거래
- 시장조성자로 지정('22년)되어 배출권 보유량을 확대하며 시장 안정화와 지속 발전에 기여
-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자기매매 및 중개 영역에서 감독기관에 부수업무 신고('22년)
-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22년)

##### ■ ESG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임팩트 투자 추진 (케이비증권 ESG 가치확산 투자조합 펀드)

- 사회혁신과 환경개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 협업파트너와 사회혁신 파트너로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통한 ESG 가치를 확산



ESG 생태계 확산을 위한 임팩트 투자 업무 협약식



###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KB금융그룹이 가입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정신과 뜻을 같이하는 것은 물론, KB증권 자체적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가입과 이행을 통해 ESG경영을 체계화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UNGC와 AVPN에 대한 이니셔티브 가입을 통해 ESG경영에 대한 리더십 및 의지 확대와 체계적인 ESG경영의 추진을 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에는 국내 금융업계 최초로 UNGC의 'SDGs를 위한 CFO연합'에 가입함으로써, ESG 경영을 재무 전략 및 금융 포트폴리오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KB금융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와의 연대를 통해 최신 기후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UNEP FI, NZBA, 적도원칙, RE100, SBTi, PCAF, CDP, TCFD, WEPs, BNPB, CoREi, TNFD, GFANZ 등)

### 6. 기타

#### ■ 환경 테마 사회공헌 사업 확대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은 자체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캠페인을 추진할 뿐 아니라, 친환경 가치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라는 슬로건을 필두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보호 테마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플로깅 캠페인인 'Change Our Life'를 양양, 해운대에서 실시하였고, 'KB증권 그린성장로드' 식재사업을 통해 난지캠핑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주도 친환경 실천을 위해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 지역에서 다회용컵 대여서비스를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푸른컵'과 함께 일회용컵 줄이기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친환경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Z세대 플로거(Plogger)와 함께 해운대 플로깅 캠페인 진행

#### ■ 다양성 및 포용성 확대

KB증권은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포용적인 조직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심옥수와 헬스키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올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경기사업장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실현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여성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여 여성 직원 및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였고,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방문하였습니다.

#### ■ RE100 이행

RE100 이행을 위해 소유 건물에 친환경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연수원(용인)과 남울산사옥 옥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연간 약 16만 kWh의 발전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2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더불어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2)의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간담회'



연수원 주차타워 태양광

■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세상을 바꾸는 금융’ 미션 아래, 미래세대 육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방향으로 삼아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기반을 지원하고, 소외 이웃을 돕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교실’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아동의 교육/생활/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대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30개소(국내 21개, 해외 9개)의 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소외 이웃에게 식재료,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 든든 KB박스’ 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 설까지 총 3,820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사1교 금융교육, 재난재해 지원 활동, KB증권 행복그린캠핑 등 다양한 곳에 도움을 주며 진정성 있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Mastern

INVESTMENT MANAGEMENT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 1) 미션비전

마스턴투자운용(이하 마스턴)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을 미션으로 합니다.

### 2) 목표

마스턴은 ESG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각의 영역에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목표 및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환경(E)영역**에서는 ‘탄소중립 2050’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050년까지 마스턴이 운용하는 자산에서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시공, 운영단계에서부터 전문지식과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외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 요인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 구조를 상품설계에 반영하고, 임차인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선진적인 스마트빌딩 시스템 기술 및 친환경 공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에 대한 신념과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S)영역**의 통합 목표는 ‘For the Satisfaction of Key Stakeholders : 주요 이해관계자의 만족’입니다. 이 목표 하에 보건과 안전, 포용과 다양성, 근로 관련 이슈, 고객만족도 향상 등 총 4개의 상세 목표를 수립하여 각 목표 별 세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턴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위해 임차인, 임직원 그리고 협력사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고충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에는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도 받았습니다.





ISO45001 및 ISO14001 인증 수여식



2022년 ESG Report

지배구조(G)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윤리 및 투명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 가입을 통해 반부패 원칙, 자금세탁방지 원칙 등을 준수하여 글로벌 ESG 리더로서 마스턴의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공표하고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ESG Report를 발간하여 마스턴의 ESG 전략과 경영활동을 공시하였습니다.

### 3) 거버넌스

마스턴투자운용은 2021년 6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4인과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전사 ESG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협의체로서 ESG 정책을 수립하고 ESG 중장기 추진과제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임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사내에 'ESG DNA'를 확산하기 위해 탑다운(Top-down) 방식과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ESG위원회 산하 실무총괄 상설조직인 ESG LAB이 발족되었습니다. ESG LAB은 각 영역별 전담부서의 전문가와 상근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합투자업자 및 AMC차원과 FUND, PFV 등 투자기구차원을 모두 통합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ESG 추진과제 및 업무 수행 결과를 ESG위원회에 보고하는 ESG 경영의 실행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스턴투자운용 ESG LAB과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지속가능금융 Talk' 현장



## 2.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소개

마스틴은 지속가능금융의 고도화와 확대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 임팩트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가치를 ESG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부동산 ESG 투자의 4단계 프로세스



중기적인 목표는 '지속가능금융의 성숙화'입니다. 이를 위해 ESG 투자 프로세스 및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내부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산의 ESG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ESG 요소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SG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GRESB와 같은 ESG 평가와 함께 ESG 영역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LEED, BREEAM, WELL과 같은 ESG 인증 역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경제구조 및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형태 등에 대한 ESG테마를 발굴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입니다. 마스틴은 2030년까지 UN SDGs 목표 달성과 2050년까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SG파이낸싱과 ESG테마 투자를 보다 확대하여 글로벌 지속가능 목표달성을 위한 자금 불일치(Funding gap)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50 넷제로 달성 전략을 투자자산별로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급망의 ESG 관리를 통해 마스틴의 ESG 경영의지와 효과를 관련 산업군으로 확산시키고 투자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마스틴은 투자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ESG Integration(통합)을 추구합니다. 여기서의 'ESG Integration'은 '투자 프로세스' 관점에서 마스틴이 고객을 위한 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ESG 요소가 운용업무 전반에 적절히 통합되고 내재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스틴은 투자이사 결정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certification)을 적극 활용하는 'ESG 통합(Integration)'과 'Positive screening'을 핵심전략으로 하며, 건물 사용자의 웰빙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고려한 '지속가능테마투자'를 위성전략으로 활용합니다.

ESG 투자의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2030년에는 마스틴이 운용하는 모든 포트폴리오에 ESG 투자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SG 투자전략은 (i)투자자산의 성격(개발/실물, 용도, 지역 등) 및 (ii)부동산 투자전략 스타일(Core/Value-added/Opportunistic)에 따른 특색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 1) 친환경건축물 인증

마스틴투자운용의 대표적인 지속가능금융 상품은 ESG 투자 프로세스를 거쳐 투자한 자산입니다.

특히 마스틴은 변화하는 국내외 시장 동향과 투자자 니즈에 맞추어 자산의 환경(E)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친환경 및 웰빙 건축물 인증제도를 ESG 핵심 투자전략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GRESB 5 STAR와 LEED PLATINUM 등급을 받은 돈의문 디타워

NO	자산명(펀드명)	보유형태	자산유형	인증 목표 및 현황
1	센터포인트 강남 (마스턴제99호피에프브이(주))	개발	오피스	LEED GOLD(목표) 녹색건축인증 우수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2	분당M타워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56호)	실물	오피스	LEED GOLD
3	돈의문 디타워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9호)	실물	오피스	LEED PLATINUM GRESB 5 STAR WELL HSR 녹색건축인증 우수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4	용인 백암 원진 물류센터 (마스턴제9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실물	물류센터	WELL HSR
5	용인 백암 물류센터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제70호)	실물	물류센터	WELL HSR
6	용인 한미 물류센터 (마스턴제110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실물	물류센터	WELL HSR
7	안성 쿠팡 물류센터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1호)	실물	물류센터	WELL HSR
8	인천 도화 물류센터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9호)	실물	물류센터	WELL HSR
9	용인 프라자로지스 물류센터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8호)	실물	물류센터	WELL HSR
10	성수동 무신사 캠퍼스 (마스턴밸류어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6호)	실물	오피스	LEED GOLD 녹색건축인증 우수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1	로지스코 시흥 (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0호)	실물	물류센터	LEED CERTIFIED WELL HSR
12	콘코디언빌딩(마스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78호)	실물	오피스	LEED GOLD
13	을지로 오피스 (마스턴제75호을지로피에프브이주식회사)	개발	오피스	LEED GOLD(목표)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14	인천시 남동공단 물류센터 (마스턴제14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선매입	물류센터	LEED SILVER(목표)
15	속초 카시아 생활형 숙박시설 (마스턴제88호속초피에프브이주식회사)	개발	숙박시설	LEED CERTIFIED(목표)

### 2) 지속가능채권 발행

마스턴은 2021년 2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 건물에 투자하는 녹색 프로젝트와 임대주택 등에 투자하는 사회적 프로젝트로 나눠 사용됐습니다. 그중 청년주택 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신축 주거시설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주변 주거시설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청년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마스턴은 물류센터용 고효율 냉동시스템 관련 특허 등록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전력 비용 절감 등 ESG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넓은 온도 영역에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한 냉장 냉동 겸용의 물류센터용 냉동시스템' 특허 등록 이후, 마스턴 이 개발한 물류센터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운용해본 결과, 전기요금이 현저히 절감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물류창고 운영사 및 임차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 4) 그린임대차동의서 도입

마스턴은 에너지 및 물 사용, 폐기물 배출 등과 같은 건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운영에 대해 임차인도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 임대차동의서를 도입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물 사용량 감축,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사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오염수, 폐기물 감축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공동체를 고려한 공익행사 유치 등과 같은 ESG 중 S(Social) 측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산 단위의 원활한 ESG 활동 및 대내외 ESG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임대차동의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UN Global Compact  
TCFD supporters

## 6. 기타

마스턴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및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빌딩 인증, 에너지 효율 향상, 지속가능한 재료 및 자원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ESG 투자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새로 짓는 건물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건물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매년 절감 목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고자 합니다.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 공사는 ESG 비전(“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글로벌 리딩 무역·투자 파트너)에 따른 3대 전략 방향 및 12개 전략 목표 설정 등 전사적인 ESG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K-SURE ESG 추진 전략 >

전략 방향	(E) 친환경 책임경영 이행	(S)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E) ESG경영 내재화·확산
전략 목표	① 글로벌 그린 금융 선도	⑤ 사회적책임 중심 활동	⑨ 공정·준법 경영 강조
	② 친환경산업 저변 확충	⑥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⑩ 윤리·투명 경영 강화
	③ 탄소 중립 사회 구현	⑦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⑪ ESG 투자 확대
	④ 친환경 경영 체계 고도화	⑧ 재난안전 및 정보보안 고도화	⑫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 2.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소개

1) (환경) 친환경 정책금융 확대 공급으로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장기 금융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선박 등 해외 그린 프로젝트 지원 확대하고 있고, 단기성 금융 측면에서는 2차 전지 등 친환경 산업 무역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사회) 일자리 창출 및 비수도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이 수반되는 국가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수출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채용 비리·부패 비위 행위 Zero 유지, 무역보험 기금을 활용한 ESG 투자 목표 확대 및 ESG를 반영한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1) (프로젝트 환경관리) 해외 프로젝트 대상 환경심사 강화로 해외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엄격한 국제기준에 맞춘 환경사회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 환경관리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지원한 프로젝트를 지속 관리하고 환경문제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지역 수출기업 지원)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 성장동력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산업별 수출금융 2배 우대, 컨설팅 등 우대지원 프로그램 도입 및 월간 지원 목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산업부, 무보, 코트라 등 7개 기관) 운영, 지역대학 등 전국 단위 협업플랫폼 적극 활용으로 체감성 높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하고 있습니다.

3) (ESG투자) 기금 운용의 ESG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SG 금융자산에 적극 투자하여 기존 ESG 투자 규모를 도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ESG 상품 및 ESG 주식까지 투자 대상을 다변화, 금융기관 선정시 환경 등 ESG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21년 대비 '22년 ESG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하였습니다.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1) (그린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그린 프로젝트 지원으로 글로벌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금융부문 민·관 협력을 주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H社.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금융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금융 상품성 등을 개선하여 P社. 아르헨티나 리튬개발 사업에 금융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2) (에너지 전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친환경 선박 및 원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LNG 이중연료, 황산화물 저감장치 장착 등 친환경 선박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진금 융기법을 도입, S社. 캐나다 선주 앞 친환경 컨테이너선 10척 수출 지원하였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원전금융 Team K 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공동보증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자재 수출 지원으로 E社. 터키 원전 앞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3) (배터리) 전기차 보급률 확대에 따른 배터리 등 미래 친환경산업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원자재 단가 비중이 높은 산업특성을 고려하고, 지원 업체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대상 거래 확대를 위해 보장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지원패키지 확대 지원하였고 고객군별 마케팅 실시 및 산업 특화제도 운영으로 미국 V 발전사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 관련 L社. 신규 금융한도 부여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4) (우대지원/서비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ESG 확산을 위한 우대 지원 제도 확대, 민간 기관과의 ESG협업 실시 및 글로벌 ESG 공급망 규제 대응을 위한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하였습니다. 교역국의 ESG 규제가 본격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체 역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SG 우수 중소중견 기업 대상 다각적인 우대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은행과의 협업으로 민간의 ESG 컨설팅 자원을 활용하고,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ESG 동향 공유를 실시하는 등 민간과의 ESG 협업 확대하였고, EU 공급망 실사지침·CBAM 등 글로벌 ESG 규제에 적시 대응 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자사의 ESG 대응 수준을 무료로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5) (환경관리) 해외 프로젝트 사업 관련 국제기준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량 요구하고 있으며 적도원칙에 의거 연간 배출량 10만톤 초과시 기후리스크 검토 의무 부여 등 국제 환경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1) (TCFD) '21년 제1차 그린금융협의회에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를 지지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기후 관련 공시를 준수하여 글로벌 환경 스탠다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2) (기타) 해외 프로젝트 대상 중장기성 금융 지원 시 OECD, IFC Performance Standards, EHS 가이드라인 등 국제 규범에 따른 환경사회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KIBO 기술보증기금

### 1. 지속가능경영 비전/목표/전략 및 거버넌스 소개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라는 특색에 맞게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2030 기술보증기금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보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소·벤처기업의 ESG 동반자'라는 비전과 '더 나은 미래, 기보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마련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별로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ESG경영 유도·지원 목표와 기보 내부 ESG 경영 혁신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였습니다.

비전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중소·벤처기업의 ESG 동반자		
슬로건	더 나은 미래, 기보와 함께 (Better Future, KIBO Together)		
전략방향	E(탄소중립)	S(국민행복)	G(공정세상)
전략 목표	기업지원 기후보증 10조원 지원	소셜벤처 5천개 발굴	클린보증 3조원 지원
	내부혁신 온실가스 50% 감축	동반성장 최 우수등급 획득	종합성원도 1등급 달성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전략]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정책 이행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기보 운영 관련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의결기구로 위원장인 이사장, 지명위원 5명, 위촉위원 7명으로 총 13명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정기 회의 2회, 수시회의(의결사항 발생 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보는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ESG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심의, 의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소개

상기 ESG경영 추진전략에 담긴 바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금융 강화를 위해 6대 전략목표 중 기업지원 분야 3대 전략목표인 (E)기후 보증 10조원 지원, (S)소셜벤처 5천개 발굴, (G)클린보증 3조원 지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3.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 ESG 반영 사례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2030년까지 업무용 자동차를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EV100 로드맵'을 수립하여 매년 기보 업무용 차량 수급 계획 수립 시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한국형 RE100에 참여하여 태양광 에너지 자가발전, 녹색프리미엄 구매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을 제고하여 2022년 연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전년비 7.4% 상승한 32.5%를 기록하였습니다.

## 4. 지속가능금융 상품/서비스 사례

### 탄소가치평가 기반 녹색금융 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2021년 6월 신재생에너지보증을 통해 녹색금융을 우선 실행하였습니다.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과 관련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총 2,870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며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 혹은 사용하는 기업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설비* 등을 제조, 설치 또는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 (태양광) 모듈, 인버터, 배전반, 구조물 등 / (풍력) 터빈, 날개, 타워, 인버터 및 관련 부품 / (지열, 수열) 히트펌프, 축열조 등

그리고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를 기반으로 2022년 5월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신규 출시하여 관련 산업분야에 2022년 총 741개 기업, 5,007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유형은 기존 ▲신재생에너지기업을 포함한 ▲자체감축기업(고효율 시설 및 수송수단 도입, 연료전환 등), ▲외부감축기업(탄소감축을 유발할 수 있는 완제품, 부품, 및 소재 등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여 탄소감축에 간접적 기여)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기업	자체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영위기업	中·高탄소 업종 영위 기술혁신형기업 등	우수기술 보유 기술혁신형기업
탄소감축 내용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연료전지, 수력 등	시설도입(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기업내부에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추진	탄소저감 기술, 제품·부품등 사업화를 통해 기업 외부에서 탄소감축에 기여

탄소가치평가 기반 녹색금융 지원 사례

기보는 신재생에너지보증으로 자가사업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판매로 수익 창출과 함께 ESG 경영을 추진하는 철강제조업 기업과 GFRP(유리섬유강화폴리머)를 통해 풍력터빈용 블레이드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제품의 풍력발전 기여도를 감안하여 탄소가치를 산출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지원사례① (주)O스틸	대표지원사례② (주)OOOO컴스
<p>철강제조업 자가사업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발전전력판매</p>  <p>251tCO2eq/연 ↓ 20년 간 누적 총 감축량 4,786tCO2eq ↓</p>	<p>GFRP 복합소재로 터빈용 블레이드를 제조하여 발전효율이 높은 풍력발전기 부품 생산</p>  <p>166tCO2eq/연 ↓</p>

그리고 2022년 5월에 신규 시행한 탄소가치평가보증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BC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대표지원사례③ (주)OO모빌리티	대표지원사례④ (주)삼OOOO
<p>초소형 전기차 제조기업으로 감축량을 휘발유차 ▶ 전기차 산정기준으로 산출</p>  <p>1.26tCO2eq/연·대 ↓ 누적판매에 따른 총 감축량 6,441tCO2eq ↓</p>	<p>유가공품을 제조하면서 사용되는 보일러의 연료를 BC유 ▶ LNG 전환</p>  <p>3,637tCO2eq      977tCO2eq/연 ↓      2,660tCO2eq</p>

5.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UNGC (2011)
- UN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UN CTCN, 2016)
- TCFD (2021)

## 참고 문헌

### [도서 및 간행물]

관계부처 합동.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경제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2022.

금융위원회.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보도자료), 2023.

금융위원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 제정](#)(보도자료), 2023.

김한조. [ESG 등급 및 데이터 제공회사에 관한 규제 논의](#). 금융투자협회, 2021.

손서원. EU는 전환금융도 지속가능 금융으로 정의. 삼성증권(SUSTAINWISE), 2023.

신한금융지주. [ESG보고서](#), 2022

이상현. 지속가능금융의 의미와 통계 현황. 한국은행(National Accounts Review), 2022.

장명화. EU의 지속가능금융 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 KDB산업은행(산은조사월보 제798호), 2022.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ESG펀드 현황 및 관련 규제 영향](#). 2023.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호 2022 하반기](#), 2022.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2020 한국 ESG금융 백서: 지속가능금융, 교차로에 서다, 2020.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2022 한국 ESG금융 백서: 지속가능금융 대장정, 그 길에 오르다, 2022.

한국회계기준원.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2023.

홍지연. 글로벌 ESG펀드 현황 및 관련 규제 영향.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포커스), 2023.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2.

Blackrock. [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 2023.

Bloomberg. [ESG fund downgrades top \\$125 billion as Axa adds to Tally](#), 2022.

European Banking Authority. [The EBA Roadmap on Sustainable Finance](#), 2022.

European Commissi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Factsheet), 2019.

\_\_\_\_\_. EU Sustainable Finance: Strategy (Factsheet), 2021.

\_\_\_\_\_. Sustainable Finance: Investing in a sustainable future (Factsheet), 2023.

\_\_\_\_\_.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Sustainable Finance Package](#), 2023.

\_\_\_\_\_. [Implementing and delegated acts - SFDR](#), 2023.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Call for evidence on the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preferences in the suitability assessment and product governance arrangements](#), 2023.

G20. [Sustainable Finance Roadmap](#), 2021.

G20. [2022 G20 Sustainable Finance Report](#), 2022.

Loan Syndications and Trading Association. [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 2023

Morningstar, SFDR Article 8 and Article 9 Funds: Q3 2022 in Review. 2022

MSCI. [MSCI ESG Controversies and Global Norms Methodology](#), 2023.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United Nations SSE initiative: 10 Years of Impact and Progress](#), 2019.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The Green Bond Principles \(GBP\)](#), 2021.

\_\_\_\_\_. [The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SBG\)](#), 2021.

\_\_\_\_\_. [The Social Bond Principles \(SBP\)](#), 2023.

\_\_\_\_\_. [The 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SLBP\)](#), 2023.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Recommendations](#), 2017.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 Recommendations](#), 2023.

UNEP FI. [Definitions and Concepts: Background Note \(Inquiry working paper 16/13\)](#), 2016.

UNGC. [Corporate Finance: A Roadmap to Mainstream SDG Investments](#), 2019.

## [웹사이트]

고양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하나은행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2023.06.29. <https://gycci.korcham.net/front/boardlink/boardlinkContentsView.do?boardId=13&contId=20120936421&menuId=5212/>.

금융투자협회. “ESG 채권인증평가 가이드라인”. 2023.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353&historySeq=1544>.

한국거래소. “SRI 채권시장동향”. n.d. <https://sribond.krx.co.kr/board/SRI05050000/bbs#/>.

BNP Paribas. A new element in the mix. 22-Jan-2019. <https://cib.bnpparibas/a-new-element-in-the-mix/>

European Commission. “Overview of sustainable finance”. n.d. [https://finance.ec.europa.eu/sustainable-finance/overview-sustainable-finance\\_en/](https://finance.ec.europa.eu/sustainable-finance/overview-sustainable-finance_en/).

MSCI, “MSCI ESG Screened Indexes”. n.d. <https://www.msci.com/our-solutions/indexes/esg-screened-indexes/>.

OECD, “What is transition finance?”. n.d. <https://www.oecd-ilibrary.org/sites/b0d62d2b-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b0d62d2b-en/>.

PRI, “What a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n.d. <https://www.unpri.org/about-us/what-are-the-principles-for-responsible-investment/>.

PRI, “Sustainability-linked loans: A strong ESG commitment or a vehicle for greenwashing?”. July 20, 2022.

<https://www.unpri.org/pri-blog-sustainability-linked-loans-a-strong-esg-commitment-or-a-vehicle-for-greenwashing/10243.article/>.

RepRisk, “RepRisk methodology overview”. n.d. <https://www.reprisk.com/news-research/resources/methodology/>.

Sustainalytics, “Global Standards Screening”. n.d. <https://www.sustainalytics.com/investor-solutions/esg-research/esg-screening/global-compact-norms-based-screening/>.

Swiss Sustainable Finance, “What is Sustainable Finance”. n.d. <https://www.sustainablefinance.ch/en/resources/what-is-sustainable-finance-content---1--1055.html/>.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Who we are”. n.d. <https://sseinitiative.org/about/>.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Ring the bell for Gender Equality”. n.d. <https://sseinitiative.org/sse-event/2023-ring-the-bell-for-gender-equality/>.



Tiara Azarine and Laura Eboa Songue, "Sustainable Finance: A Transition Framework to Reach the SDGs". UNDP Finance Hub. n.d.

<https://sdgfinance.undp.org/news/sustainable-finance-transition-framework-reach-sdgs/>.

UNEP FI,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n.d. <https://www.unepfi.org/insurance/insurance/>.

UNEP FI,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n.d. <https://www.unepfi.org/banking/bankingprinciples/>.

PwC Netherlan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n.d.

<https://www.pwc.nl/en/topics/sustainability/es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directive.html/>.

